

공기업, 주식 팔아 빛 갚는다

한전·예보 등 경영정상화 일환 대형 블록딜 잇따라
부채감축·유통주식 증가·증시호조 시장엔 '일석삼조'

올 들어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통한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잇단 대형 블록딜에 나서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이 보유 중인 기업 지분을 블록딜로 대거 처분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배당정책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한전은 이달 들어 지난 4일 보유 중이던 LG유플러스 지분 4.4%(1863억원)에 이어 5일 자회사인 한전 KPS 지분 7%(2224억원)을 잇달아 블록딜로 처분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자금 조달과 부채 감축 일환으로 자회

사인 한전KPS와 LG유플러스 지분을 처분했다"며 "최근 주가 역시 나쁘지 않아 블록딜 타이밍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도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 보통주 106만1155주(0.55%)를 블록딜로 매각해 381억원을 회수했고, 지난달 23일 블록딜로 제주은행 보유지분 전량인 보통주 334만3089만주(15.1%)를 매각해 226억원을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로 제주은행의 대기불량 부담이 해소돼 유통물량 증가, 추가적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유 중인 기업은 행 지분 2802만주(5.0%)를 블록딜로 3642

주요 공기업 최근 블록딜 현황

보유자	기업명	처분 지분
기획재정부	기업은행	5% (3642억원)
한국전력공사	LG유플러스	4.4% (1863억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7% (2224억원)
예금보험공사	대우조선해양	0.55% (381억원)
예금보험공사	제주은행	15.1% (226억원)
정책금융공사	SK하이닉스	0.55% (1905억원)

억원에 매각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정부 보유 지분은 기존 60.0%(보통주)에서 55.0%로 떨어졌다.

연내 산업은행과 통합을 앞둔 정책금융공사도 지난 6월 17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의 잔여지분(0.55%) 393만7095주를 블록딜로 매각해 1900억원 규모를 손에 쥐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200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시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지분 5.5%(3241만주)를 이관받았고, 두 차례에 걸친 블록딜로 지분을 모두 처분했

다. 다만 현재 정책금융공사가 보유 중인 현대건설(3.3%), SK네트웍스(5%)는 당시 취득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딜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12.2%,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도에 몰려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지분 24.75%도 향후 잠재 블록딜 매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취득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낮아 당분간 지분을 털어 내기엔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데다 추후 M&A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블록딜에 성공한 공기업의 행보와 관련, 부채 감축 효과와 시장 발행 주식 유통 물량 증가, 증시 호조에 따른 시세 차익 등 일석삼조 효과를 얻은 것으로 진단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보고서 치장 1300만원 쓴 미래부

대통령 보고용 PPT 자료
"과다한 지급 아니다" 항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월 있었던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당시 자료 디자인 비용으로 1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1700만원을 썼다. 대통령 1인을 위한 보고서 디자인 비용치고는 과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8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래부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35페이지 분량의 대통령 업무보고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 A디자인 업체에 135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만드는 데 39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큰 비용이 발생한 건 보고서 마감 시한에 쫓겨 다급했던 미래부가 A업체가 제시한 인건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A업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인원이 2명으로 돼 있다. 총 15일

이 걸린 보고서 작업 인원의 1인당 하루 인건비는 34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4일간의 야근수당(1인당 25만3750원)을 더해 총 소요비용 1250만원, 여기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1375만원 일 있었던 35페이지 분량의 대통령 업무보고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 13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관련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가 지급한 비용은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경력 10년 이상의 실력 있는 분들한테 맡겼고, 대통령 보고이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해 밤샘작업을 많이 했다"면서 "과다하게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의중 기자 zerg@

평화와 화해, 사랑의 씨앗 심고... 교황 오늘 출국



프란치스코 교황(맨 오른쪽)이 18일 명동성당에서 한국의 종교지도자들과 회담하고 있다. 교황은 명동성당 미사를 마무리한 뒤 19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관련기사 2면 AFP연합뉴스

장기불황에 실적부진 대기업도 '추풍낙엽'

신용등급 하락 11년만에 최대

상반기 32곳...현대상선 2단계↓

장기 불황 속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용등급 하락 기업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

18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총 32개사다. 지난해 동기(21개사)에 비해 11개사가 늘었다. 이는 한국기업평가가 2003년부터 등급 변동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신용등급이 하락한 32개사 가운데 30개사가 대기업이고, 투자적격 등급 업체가 28곳이나 됐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7개사는 2단계나 하락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24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23개사가 대기업이다. 신용등급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11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은 9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개사보다 7개사가 줄었다.

이에 따라 '등급 상하향배율(등급 상승업체 수/등급 하향업체 수)'은 작년 상반기 0.8배에서 올 상반기 0.28배로 급락하면서 상반기 기준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등급 상하향배율'은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 수를 하락하거나 부도가 난 기업 수로 나눈 수치로, 배율 하락은 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윤주 기자 hyj@

숫자로 본 NEWS



기업 접대비 씀씀이 커졌네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매년 늘어나며 지난해에는 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접대비 지출 추이로 미뤄 볼 때 지난해 9조원대를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체재비 가장 비싼 도시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하루 생활하는데 드는 체재비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25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계 100대 도시 여행객 평균 체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의 1일 체재비는 426달러(호텔비 253달러, 음식 173달러)로 100대 도시 가운데 25번째, 아시아 도시 가운데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혜은 기자 euna@

명량, 한국영화 첫 매출 1000억

개봉 19일만에 1400만 돌파 아바타 잡고 최다관객 신기록

영화 '명량'(배급 CJ엔터테인먼트, 감독 김한민)이 역대 박스오피스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하며 한국영화 최초로 100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집계 결과 '명량'은 개봉 18일째인 16일 1398만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100여일에 걸쳐 '아바타'(2009)가 동원한 1362만명의 기록을 썼다. 17일엔 누적 관객 수 1462만명으로 1400만대를 돌파했다.

매출액 면에서도 '명량'은 연일 한국영화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17일 현재 누적 매출액은 1130억원을 넘어서 한국영화 처음으로 1000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제작비 200억원을 들인 '명량'은 7일 만에 손익분기점(BEP) 65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전체 개봉 영화 중 국내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영화는 외화 '아

바타'(1248억원)가 유일하다.

흥행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명량'의 가장 큰 수혜자는 메가폰을 잡은 김한민 감독이다. 1130억원의 매출에서 영화발전기금(3%)과 부가세(10%)를 뺀 순매출액은 984억원이다. 이 중 극장 몫 50%를 제외한 투자자, 배급사, 제작사의 몫은 492억원이다. 여기서 배급 수수료 10%를 제외하면 443억원이고, 총 제작비 200억원을 제하면 순이익은 243억원이다. 순이익은 투자배급사 60%, 제작사 40%로 분할된다. 이에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등이 145.5억원을 갖고, 제작사 빅스톤픽처스가 97.5억원을 할당받는다. 김한민 감독은 빅스톤픽처스의 대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관련 수익 등을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게 된다. 최두선 기자 sun@

Biz 월요일 19~25일

커버스토리
수입차 거침없는 질주

장남식 회장 ▶▶ 신준근 사장 ▶▶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중국 난징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올림픽 후원 계약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삼성 태블릿에 기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스포츠 마케팅' 전면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올림픽 후원 연장계약
李 부회장 공개행사 첫 주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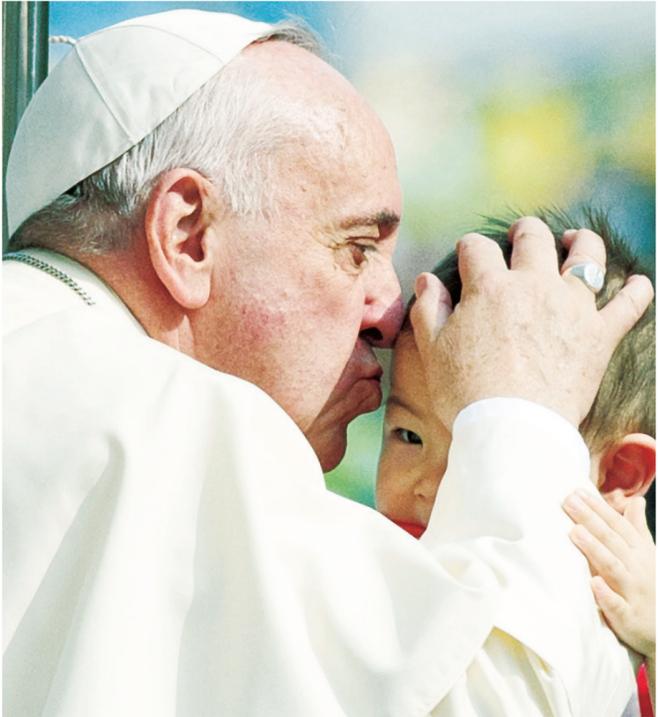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스포츠 마케팅을 직접 챙기고 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정보기술(IT) 제품 홍보 효과는 물론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난징(南京)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

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올림픽 후원 연장 계약을 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공개 행사를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후원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년 이상 올림픽 파트너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후원 범위를 기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PC, 프린터 등의 제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상처난 대한민국, 치유의 100시간... “파파, 또 오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 오전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4위 시복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광화문까지 차량 퍼레이드를 하던 중 아이의 머리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늘 한국 떠나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끝으로 4박5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출국한다. 교황은 지난 14일 입국한 뒤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과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등을 집전하고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 장애인들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헬기 대신 KTX... 소탈한 행보 잇따라 세월호 유가족·위안부 할머니 등 만나 시민 손 잡고 아이 보면 쓰다듬고 입맞춰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 위안과 희망

◇낮은 곳으로... 소탈행보 화제=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격적이지만 소탈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의전 차량으로 가장 작은 국산차 쏘울을 타고 이동한 데 이어 대전·충청지역으로 이동할 땐 헬기가 아닌 KTX를 이용하는 등 그의 소박한 실전은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됐다.

14일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고, 16일에는 음성 꽃동네에 가서 장애인들을 만나 안아주고 축복했다. 15일 중

남 당진 솔피성지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대회에서는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애환에 화답했다. 이들의 고민이 담긴 뮤지컬 ‘돌아온 탕자’가 공연될 때는 직접 무대 위에 앉아 청년들과 호흡하기도 했다. 또한 17일 명동성당 미사에는 한국사회의 상처로 대표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밀양 송전탑·강정마을 거주민, 쌍용차 해고자들을 초청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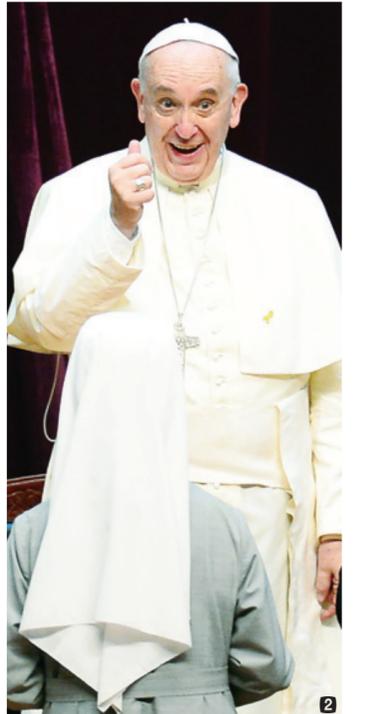
교황은 남녀노소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신체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연대를 이뤘다. 교황은 가는 곳마다 환영단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고자 대전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서면서 교황은 모두 여덟 번 차를 멈춰 세웠다. 지나가다 아이들이 보이면 차를 세우게 한 뒤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기를 땀만 아니라 교황을 만나겠다고 길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을 잡고 이마에 손을 얹어 축복했다.

교황은 방한 기간 내내 떠나는 대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이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16일 한국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 집전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카퍼레이드를 한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 400여명이 모여 있는 광화문 광장 끝에 도착하자 차를 멈추게 한 뒤 차에서 내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교황은 딸 유민양을 잃고 34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씨의 두 손을 감싸안으며 위로했다. 17일 오전에는 궁정동 주한교황청대사관에서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안산 단원고 학생 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에게 세례를 줬다.

◇상처 난 한국에 ‘치유의 세례’=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진 메시지가 한국사회를 잔잔하게 적시고 있다. 교황은 방한 이후 특별한 메시지나 해법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꾸밈 없는 행동을 보이는 방식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다. 무엇보다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위안과 희망을 선사했다.

특히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며 사회에 불의가 만연했을 때 비록 전쟁이 없다고 할지라도 잠든 평화가 아픔을 역설했다. 성직자에게는 “부자로 사는 위선인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친다”며 청빈을 강조했다. 광화문 시복식 강론에서는 “막대한 부 옆에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의 부 편중 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7일 아시아 주교단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공감하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없다면 진정한 대화란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의식하고 다른 이와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영관 기자 kwan@



1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다. 명동성당을 찾은 시민들이 인근에서 교황을 기다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 16일 오후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수도자들이 주는 선물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3 16일 음성군 명동면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 오미현양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있다.

4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자가 목걸이. 사진공동취재단

SolutionPartner



앞선 기술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도 수많은 화학이 필요하듯이 세상의 모든 기술, 화학이 완성합니다 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전지까지-

LG화학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더 앞선 삶을 누리세요



“새로운 형태의 가난 만드는 비인간적 경제모델 거부하길”

자본주의 경고 메시지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4박5일간의 방한 기간 중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경제 관련 어록도 남겼다.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나눔과 평화, 소통 외에도 ‘연대’와 ‘가난’과 관련해 강조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꼬집고 사회병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화 속에서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인간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방한 후 5만여명의 천주교 신자와 시민들이 모인 첫 대중미사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교황은 강론에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쇠신을 가져오는 충성한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 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경제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공동선, 진보와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개념이 아닌, 궁극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고준석 신부는 “교황의 강론 중 핵심은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을 교황이 지적한 것이라고 고 신부는 설명했다.

교황은 또 공직자에게 경제의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대의 세계화는 모든 인류 가족의 전인적 발전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울러 정치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해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이자소득 사실상 '제로금리'...노후 막막한 은퇴자 '한숨'



‘초저금리시대’...예금금리 1%대 추락 현실화

3년 전 은퇴한 김한식(58·인천)씨는 최근 들어 한숨이 깊어졌다. 퇴직 후 예금이자와 연금으로 생활해 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이자소득이 0%대로 접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 만기를 앞둔 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 대출이자도 낮아졌다 하니 이참에 집을 담보로 창업이라도 나서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들이 속속 예금과 적금 금리를 내리면서 '1%대 예금 금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실상 이자소득 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령화로 은퇴자 등 이자 생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연 5.87%에 달하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3.86%, 지난해 2.89%를 거쳐 올해 6월에는 2.6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 달 새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줄이면서 고객들의 체감금리는 연 2.2~2.3%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난 14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기준금리 인하여 따른 금리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2%대 예금

은행들 예·적금 금리 속속 인하 속 노후소득 중 연금비중은 13% 불과 노인복지 미비 '생활봄' 직결 우려 고정금리 전환 대출자들도 '발동동' 가계소득 감소·소비 침체 이어질 수도 "임금·배당 늘리고 연금기반 확충을"

금리는 이제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당장 노년층이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

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다.

이런 가운데 노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60~80%대 비중을 보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2011년 기준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를 기록하며 30%도 채 되지 않는다.

공·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고 노인 복지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자소득 감소는 노년층의 소비 감소와 생활수준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가계가 받는 타격도 크다. 2012년 가계 이자소득은 49조원으로 이자소득이 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이자소득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정부의 가계구조 개선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한 대출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 기준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25.7%를 기록,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대출기준 고정금리대출 비중(42.3%) 역시 5월(42.6%)에 이어 40%대를 유지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임금, 배당 등 기업이 가계로 이전하는 소득을 늘리고, 저축을 제고, 연금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보릿고개’ 금융사 수익성 빨간불

은행 순이자이익 연2700억 줄 듯 생보사 '빅3' 역마진 5000억 예상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하반기 수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2분기 2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모처럼 호실적에 웃었던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리 하락으로 예금이 타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데다 대출금리 인하여 따른 예대마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1년 1분기(2.38%)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국내 은행들의 NIM은 올해 2분기 1.82%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경기부양과 규제 완화는 대출 증가에 긍정적이거나 NIM 하락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이 2% 늘면 세전이익이 3.8% 상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리 인하여 NIM이 5bp 감소하면 세전 이익은 7.3%나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순이자이익은 연간 27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만기 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과 부채를 배분한 뒤 금리민감자산에서 금리민감부채를 빼 산출하는 1년 이하 금리갭이 25조7000억원으로 민감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순이자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여 따른 은행의 순이자이익 감소폭은 국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3조9000억원)의 7% 정도다.

상반기 인력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며 수익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보험사도 금리 인하는 큰 타격이다.

운용 수익률보다 준비금 부담 비율이 높아져 나타나는 역마진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연 6% 이상 고정금리 확정형 상품 취급 비중이 큰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빅3'는 연간 역마진 규모가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세적인 금리 하락세가 도래하면 수년 안에 심각한 역마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 조정으로 보험상품 공시이율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시이율은 금리 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일종의 이자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돼 보험 영업이 어려워진다. 2012년만 해도 공시이율은 5%대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 중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이재현·신태현 기자 nfs0118@

780만명 이자 연11만원 덜 낸다

가계·기업 은행대출 이자부담 연간 1조8000억 감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변동금리형 대출자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가계 부문의 변동금리 대출자의 평균 이자부담은 연간 11만 4000원가량 줄어들고, 기업은 95만 5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가계와 기업의 은행대출 관련 이자부담이 연간 1조 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혜가 예상되는 가계는 779만 6301명, 기업은 100만 2542곳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478조 5000억원, 대기업대출 잔액 171조원, 중소기업대출 잔액 499조 5000억원 등 은행권 대출 1149조원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폭(0.25%포인트)을 감안해 산출됐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되도록 즉시 대출금리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3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되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코픽스 금리는 기준금리의 변화를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매달 15일 전후 공시되는 코픽스에 기준금리 인하가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1~3개월이 걸린다. 또한 대출 상품에 따라 대출 금리 인하 시점도 다를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데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코픽스 금리에 반영하고 다시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같은 비율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닌 코픽스 금리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하락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부모들과 실업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금융-동부금융네트워크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아빠 그 한사람 한사람 곁에 동부생명이 있습니다

아빠에게 딸이란, 엄마에게 아들이란, 부모에게 자식이란, 세상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동부생명은 가족이 행복해야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동부금융네트워크



어디가 불편한지 살피주는 보듬은 엄마의 마음을 압니다.

동부생명

이주열 '잭슨홀 미팅' 안간다

〈한국은행 총재〉

美 금리정책 감지 기회인데... 한은 총재 5년만에 불참 논란



을 사전에 감지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잭슨홀 회의에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금리인상 시점을 좌우할 '고용시장 재평가' 이슈가 의제로 채택됐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도 있는 잭슨홀회의에 올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 총재가 이 회의에 불참하기는 5년 만에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21~23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 주제가 노동 분야인 데다 학술적 성격이 강해 총재가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유럽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불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잭슨홀회의가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양적완화 종료에 이어 내년 중·후반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미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이 참석하는 가운데 금리인상 시점을 좌우할 '고용시장 재평가' 이슈가 의제로 채택됐다.

옐런 의장이 이 회의에서 유휴노동력(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놓고 있는 노동력)의 개선 여부를 언급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한편 잭슨홀 회의는 연준 산하 캔자스시 연방준비은행이 1982년부터 고산지대 휴양지에서 매년 8월 열었던 학술회의 성격이 짙은 행사다. 하지만 2010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등 중요한 내용을 밝히면서 매년 국제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아 왔다. 앞서 김중수 전 총재는 재임기간인 2010~2013년 4년 연속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미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이진영 기자 mini@

“경제법안 신속 통과 ‘규제개혁’ 고삐”

방만경영·비정상적 적폐 해소 창조 통해 '혁신경제' 탈바꿈 차대통령 8·15경축사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 경제관련 주요 발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질 낮은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는 대혁신 추진
경제활성화 법안
정치권의 국가혁신 동참 촉구
국민의 인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경기부양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 집중
내년도 예산 확대기조 편성해 경기회복 불시 되살릴 것

지난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해 정책 당국자들은 구조개혁 정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확장적 편성 등 경기 부양 관점에서의 재정 정책 등을 예고했다. 또 이를 위한 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거듭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비효율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 적폐들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관광과 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그간 주춤했던 규제개혁의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방안의 조속 통과를 언급하며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 법안들이 묶여서 어렵게 일어난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총 30개를 분류해 놓고 있으며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안 30건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 3건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도 다시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 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기부양 발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하루 뒤에 언급된 것이다. 시장이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또한 지난달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놨고 세수 부족 논란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지원안을 발표할 바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靑 “국민 기대 부응... 내실있는 콘텐츠 준비시간 더 필요”

20일 예정 규제개혁장관회의 무기한 연기

청와대가 애초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사흘 남기고 전격 연기했다. 충분한 준비 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저녁 긴급 공지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혁신 이해보조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이날 말 소집 예정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8월 주재하는 ‘3대 경제회의’ 중 하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벌어진 ‘끝장토론’이 다시 잡혀 있었다.

청와대는 방송사 생중계를 통해 1차 회의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 결

과와 대책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했다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회의를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연기를 결정한 데에는 1차 회의 당시 정부가 약속한 규제개혁 성과나 앞으로 내놓을 대책이 기대에 미흡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의 내용과 취지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세션에서는 각 부처가 새로 마련한 개혁과제가 다수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기재부, 영상회의 활성화... 국회엔 간부만 참석

부총리 대면보고 3분의 1로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대면보고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또 각종 국회 회의에 가급적 책임자급 간부만 참석하도록 하고 영상보고·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업무 효율화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실무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업무효율을 위해 기존의 대면보고 대신 영상보고·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각종 국회 회의는 주요 간부만 참석하고 부총리에 대한 대면보고는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되 보고 인원도 3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나 긴급회의, 국회 등 시급한 현안 의

에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보고나 국회 참석, 회의 등을 위해 새벽에 세종시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올라가고 세종과 서울을 왕복하다 퇴근시간이 맞지 않아 여관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며 “일이란 투입량(IN PUT)이 아니라 산출량(OUT PUT)인데 세종시대는 투입 시간은 늘고 산출 결과는 줄어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매주 진행하던 기재부 내 확대간부회의는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서울청사에 사무공간을 만들어 보고와 회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각종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회 인근에 오피스텔 등 시설을 임차해 국회 출장자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안행부·경찰청·소방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현황			관피아 취업기관
부처	재취업자 수	취업기관	
안행부	18명	8곳	도로교통공단 25명
경찰청	36명	5곳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명
방재청	15명	7곳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명
총	69명	20곳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명
			한국소방안전협회 2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안행부·경찰청 산하 ‘관피아’ 득실

20개 기관 69명 재취업

(20.3%)은 기관장으로, 절반가량인 33명(47.8%)은 산하기관 이사나 감사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3개 부처 산하의 20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에 재취업 중인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69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0명 중 7명꼴로 기관장 등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들 3개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퇴직공직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 퇴직자가 8개 산하 기관에 18명, 경찰청 퇴직자는 5개 기관에 36명, 소방청 퇴직자는 7개 기관에 15명이 각각 재취업하고 있다. 재취업한 퇴직자 69명 중에서 14명

특히 강 의원은 안행부, 경찰청, 방재청 관피아들이 동지를 둔 직장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공직 유관기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 관피아 취업 인원은 도로교통공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4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명), 한국소방안전협회(2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명),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안전규제·조달업무 담당기관에도 안행부 소관 3개 부처 퇴직자들이 채용돼 있었다. 이진영 기자 mini@



“반갑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옆 북측 개성공단 총국사무소에서 임동원(왼쪽) 전 통일부 장관이 마중 나온 김양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와 악수하고 있다.

부동산펀드·리츠 稅혜택 연내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 정부, 年1700억 세수 확보

내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몰기한이 도래한 부동산 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00여명에 이르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 프로젝트금융

회사는 내년부터 매입한 토지와 빌딩에 취득세(매입가의 4.6%)의 30~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약 1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에 의한 조세감면 규모는 1734억원(PFV 772억원, 부동산 펀드 654억원, 리츠 308억원)이다.

부동산 펀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시한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하는 식으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더는 세금 혜택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지방세수 확보도 시급해 더 이상 감면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자산운용·리츠업계는 세계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상업·오피스 단지 건립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고 리츠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기존의 조치와 시그널이 서로 달라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통과 무난할 듯

오늘 검증절차 돌입

국회는 18일 임환수(사진)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은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20여년간 국세행정을 맡아온 전문가인 만큼 이날 오후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 역량을 점검했다.

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변수가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특히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준비, 정치개혁 법안 심의 등의 일정이 급해 청문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야당은 임 후보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임 후보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검증에 무게를 두고 세원 확보를 위한 정책 등에 집요를 집중했다.

임 후보는 공직에 입문한 이래 삼척세무서 직제과장을 시작으로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다.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던 2006년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의 발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청 조사·4국장파 분청 조사국장을 지냈지만 과도한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추진할 당시 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필호 기자 beetlebun@

‘파업’ 현대차... 경기회복 제동 거나

노조 찬반투표 실시 ‘찬성’ 가결... 22일 부분파업 예상 28년동안 24번째... 협력사 하루 900억 규모 생산 차질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2일 파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26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2931명(전체 조합원 대비 69.6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금속노조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하

는 지점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 파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조는 세부적인 파업 일정은 18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이외에 △기분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사고자 복지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에 나서면 1987년 이후 28년 동안 모두 24차례 파업을 실시하게 된다.

1987년 처음 파업에 나선 현대차 노조는 당시 모두 21일 동안 파업을 벌여 2400억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노조의 파업 기간이 가장 길었던 1998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36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총 15일간 파업을 벌여 5만191대의 생산이 지연됐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1조225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업계에서

는 한국지엠과 쌍용차 노사가 올해 집단협에서 경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를 대표하는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아무런 성과없이 파업을 끝내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부품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대차 부품협력사는 43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원천인 현대차가 파업에 돌입하면 하루 9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품업계의 매출마저 줄어들면 국내 경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고개숙인 남경필



항변하는 김수창

‘사회지도층 처신’ 도마위

남지사 장남 군후임 가혹행위
가해자인 사실 뒤늦게 알려져
금지검장 ‘음란행위’ 진실공방
신분 속이고 체포됐다 풀려나
특혜 논란 등 엄정 조사 촉구

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
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이
라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남 상병의 폭행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에도 계속됐
다는 점에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어,
남 지사에 대한 비난도 쉽사리 사그러
들지 않을 조짐이다.

그런가하면 김수창 제주시검장은
지난 12일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
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7
일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 후 경찰과
의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
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
지검장을 체포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지검장은 비속한 옷차림으로 인한 오
해일 뿐 잘못했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
이다.

특히 김 지검장은 경찰에서 풀려난
후 서울고검 기지실을 찾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사장으로서의 제 신
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
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배수진
을 치기도 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군내
가혹행위 가해자인 사실이 뒤늦게 알
려진 데 이어 김수창 제주시검장은 음
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면서
사회지도층들의 처신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남 지사는 장남 남모 상병이 최근 강
원도 철원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폭
행 및 성추행 의혹 사건의 가해자로 확
인되면서 곤혹에 빠졌다. 남 상병은 같
은 부대 한 일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일병에
대해 뒤에서 꺼냈는 등의 성추행 혐의
에 대한선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
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7
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저
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
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군에 아

강원랜드 16일 첫 파업

정부 복지제도 축소에 반발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노조가 복지제도 폐지 및 축소 추진에 반발해 16일 경고성 파업을 단행했다. 또한 노조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16일 오전 근무로부터 17일 오전까지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강원랜드 노조의 파업은 1998년 6월 강원랜드 설립 이후 처음이다.

파업에 따라 사측은 비노조원과 아르바이트 등 대체 인력 800명을 투입했지만 카지노와 음식점 등이 영입에 차질을 빚었다. 카지노의 경우 슬롯머신 게임기 1360대는 정상 운영됐으나 테이블게임 200대 가운데 49대만 운영됐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강원랜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이 컸다.

강원랜드 노조의 파업은 노사가 현행 복지제도 개선과 관련한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기인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방안 경영 개선 차원에서 강원랜드에 대해 18개 복지혜택을 폐지하도록 했다. 사측은 18개 항목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학자금 등 일부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축소하는 선에서 노조와 교섭을 추진 중이다.

조용일 강원랜드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교섭 제의가 오면 교섭에 응하겠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희철 기자 h9913@



코스모스 만개 ‘가을 성큼’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중랑천 인근에 만개한 황코스모스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한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유병언 도피 조력자들 강한 처벌 어려울듯

김엄마 등 6명 잇따라 보석 신청 檢 “주범 사망 처벌가치 떨어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력자 6명이 잇따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검찰이 유 전 회장 조력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구원과 신도 ‘김엄마’ 김명숙(58)씨가 지난달 29일 가장 먼저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순천 송치재류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씨 부부도 보석을 신청했다.

또 구원과 신도 추모(60)씨와 한모(49)씨, 신모(33)씨 등 3명도 최근 보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유씨의 순천 별장 도피와 은신을 도운 혐의(변인도파·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구원과 측은 “유병언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여비서 신모씨는 극도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보석금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금수원 인근 곰탕집에서 열었던 포에미 맞춰, 신도들로부터 모았던 ‘진실규명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주범인 유씨가 이미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며 유씨의 운전기사 양희정(55)씨와 구원과 김씨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

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은 김씨와 변씨 부부의 보석 신청에 대해 긍정적 취지의 의견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한 의견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김씨와 비슷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각각의 죄질이 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추씨 등 6명에 대한 보석 심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별점 지우고 뒷돈’ 첩피야

前 철도공단 감사 구속 기소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성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첩피야(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근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12월과 이듬해 9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엔씨 대표이사 이모(67)씨로부터 “내부감사에서 회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이 돈을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과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각각 1000만원씩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삼표이엔씨는 경부고속철도에 시공된 독일제 분기기(레도변경장치)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이 감사를 벌여 별점을 부과하려 하자 성씨와 친분이 있는 이씨를 통해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 감사실은 2011년 1월 삼표이엔씨 등 납품업체에 별점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영남본부에 보냈으나 삼표이엔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직권으로 재심사하고 같은해 3월 별점을 취소해줬다.

성씨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내고 2010년 11월 철도시설공단에 상임감사로 영입됐다. 현재 수도권외 한 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euna@

‘수서발KTX 면허 무효소송’ 노조 패소

법원 “철도노조 제기자격 없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열차를 운영할 회사에 사업 면허를 내 준 처분을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환 부장판사)는 14일 철도노조와 조합원 등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 무효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코레일 자회사와 함께)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철도노조는 이런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레일 자회사의 수서발 KTX 운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철도노조 측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위헌성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의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의 면허 발급은 제반 법령을 위반했다. 한미 FTA에서 일부 보장받은 ‘독점권’을 변경하는 처분인데도 국회 동의없이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성이 있다”며 사를 뒤인 30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카지노 공기업 GKL 직원 20억원 횡령하려다 ‘덜미’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원이 회사 금고에서 20억원짜리 수표를 들고 나와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GKL 차장급 직원 박모(46)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18일 낮 회사 금고에서 20억원짜리 수표를 들고 나와 현금화하려 했지만, 거래 인출에 의심을 품은 은행 직원이 GKL 측에 확인 전화를 걸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GKL 관계자는 “박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개인채무가 있던 상태였다”며 “경리 담당자로 일하다가 급전이 필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GKL 측은 지난달 말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디자인 건축물들 한곳에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창(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건축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대형 텐트 등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신여대 기숙사식당 조리원 구인

여성직장 재탐색
급식 없는 방학에도 임금 지급

성신여자대학교 기숙사식당에서 조리원을 구한다.

직무내용은 기숙사 식당조리 및 업무 보조다.

이력서를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지원자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

학기중(3-6월, 9-12월)에는 1일 3식 조리하며, 여름방학에는 1일 1식, 겨울방학에는 급식이 없으나 임금은 지급된다.

모집요강	
모집직종	단체급식조리사
직무내용	기숙사 식당 조리 업무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근무지는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이나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학교 측은 오전 30분, 오후 1시간 30분 휴식시간이 있다고 명시했다.

급여는 연봉으로 지급되며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종식이 제공된다. 문의 02-920-7344 유혜은 기자 euna@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 전망 '흐림'

상반기 일회성 요인 등 영향 '반짝 실적' 기록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동부그룹 총당금 부담 악영향 우려

금융지주사들이 상반기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1회성 요인 등 영향으로 반짝 실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나타내고 있다.

14일 예프엔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우리,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 하반기 순이익은 2조799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KB금융이 전년동기 대비 8.75% 늘어난 745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은 1조672억원의 순이익을 거둬며 '1조 클럽' 가입 명맥을 이어가고 하나금융도 551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25% 넘는 성장세가 기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던 우리금융 역시 흑자로 돌아서며 4346억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조선,해운 경기 악화로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으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단순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실제 금융지주사의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상반기와 비교하면 4개사 모두 줄었다. KB금융이 상반기(잠정치) 7652억원에서 하반기(추정치) 7455억원로 2.57% 감소할

올해 5대 금융지주 실적 (단위: 억원, %)

금융사	상반기(잠정치)		하반기(예상치)	
	순이익	전년대비 증감률	순이익	전년대비 증감률
KB금융	7652	33.1	7455	8.75
농협금융	5250	242.2	-	-
신한금융	1조1360	9.6	1조672	12.97
우리금융	1조1931	232.9	4346	특자전환
하나금융	6101	17.6	5518	26.91

※ 자료: 각사, 예프엔가이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한금융(-6.06%)과 하나금융(-9.56%)에도 맥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은 법인세 환입과 계열사 매각이익 등 1회성 요인이 사라지면 상반기 대비 63.57%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이자이의 감소와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가 각각 0.25%와 0.50% 인하되면 은행 평균 NIM은 연간 각각 0.04%포인트와 0.07%포인트 내릴 것"이라며 "이는 올해 세전 순이익의 각각 4.5%와 9.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동부그룹 총당금 부담도 변수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동부그룹 관련 총당금 적립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하반기 금융지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새 경제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은 실적 가뭄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내각 2기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대출성장과 대손비용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손보협회장에 장남식 전 LIG손보 사장

신임 손보협회장에 장남식(사진) 전 LIG손해보험 사장이 선임됐다. 박종의 전 메리츠화재 대표 이후 12년 만에 민간 손보협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손보협회는 18일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손보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52대 회장으로서 장 전 LIG손보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장 전 LIG손보 사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손보협회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 장 손보협회장은 1954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법한해상화재(현 LIG손해보험)로 입사 한 후 2007년 법인영업총괄 부사장을 비롯해 영업총괄, 경영관리총괄 사장을 역임했다. 일반상품 영업 부문에서 오랫동안



간 근무한 보험 전문가로 통한다.

손보협회장직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당시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후 11개월째 공석 상태이며 장상용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신임 장 협회장은 손보업계의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협회장은 12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어느 손보협회장 후보자 이든지 손보업계에 있는 다양한 이슈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회원을 조정하면 서 회장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기 기자 kkk@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삼성화재 멤버십 잠정 중단

삼성화재가 자사 멤버십 '에스닷'의 신규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8일부터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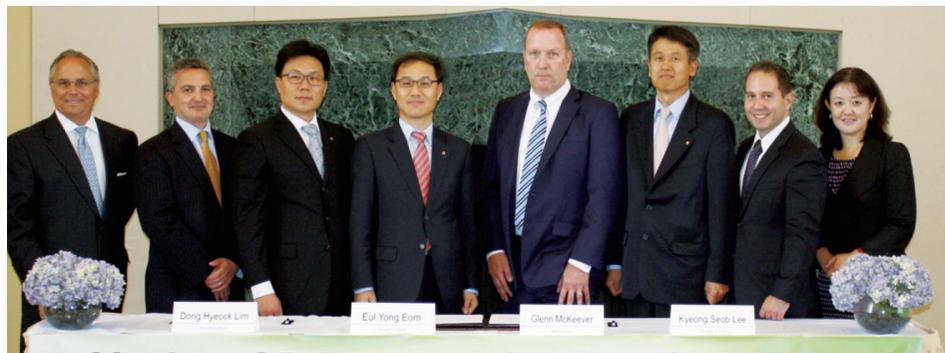
삼성화재의 멤버십은 자사 보험 계약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인기가 높아 회사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 삼성화재의 멤버십 회원은 2010년 출범 당시 3만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9만명, 2012년 47만1503명, 지난해 말에는 회원수 8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1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은 멤버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던 삼성화재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낱벼락인 셈이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안 마련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가입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내부에서는 대체안으로 아이핀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조합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99.7%로 지난 1분기(99.6%)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79.2%로 전분기(79.4%)보다 낮아졌으며 사업비율(20.5%)은 0.3%p 올랐다.

강구기 기자 kkk@



**농협은행 양키CD발행
美 자본시장 첫 진출**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점 1주년을 맞아 양도성예금증서(양키CD)를 발행하고 현지 자본시장에 진출했다. 양키CD는 미국 내 외국은행들이 발행하는 달러표시 양도성 예금증서로 미국내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다. 뉴욕지점의 양키CD 약정현도는 10억 달러다. 양키CD는 은행간 차입금보다 0.10~0.20%포인트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해 뉴욕지점의 자금조달 비용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엄용웅(왼쪽 세번째) 뉴욕지점이 양키CD 발행을 위한 대리업무를 맡은 뉴욕멜런은행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본점 부서장도 "하나·외환 통합 지지"

인트라넷에 입장 글 올려
노조 반발은 여전히 거세

외환은행이 본점 부서장들이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18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본점 부서장 전원은 최근 은행 내 인트라넷에 '조기통합 논의에 대한 외환은행 부부장 협의회 입장'이란 글을 올려 두 은행의 조기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 속에

서 외환은행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대안이 조기통합"이라며 "조기통합의 실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조합도 외환은행과 직원들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안 마련을 위해 경영진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조기통합을 위한 직원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이후 6월말까지 전 직원들을 만났고 지난달 21일부터는 2주 동안 본점 부서장 및 지역본부별 지점장 670명과 호프집에서 만나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

는 시간을 가졌다. 이달 4일부터는 636명의 책임자급 이하 일반 직원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거세 경영진들은 아직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시도에 대한 역대 노조위원장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최근 하나금융이 2:1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하나·외환) 조기합병을 선언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라고 반박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융권 일자리 1년새 5만개 줄었다

저금리·저성장 구조조정 태풍에 점포폐쇄·희망퇴직 전방위 확산

금융권 일자리가 1년 사이 5만개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경기침체 장기화와 맞물려 저금리·저수익·저성장 구조로 바뀌면서 구조조정 태풍이 금융업계 전방위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취업자는 84만5000명으로 지난해 7월(89만4000명) 대비 4만9000명(5.4%)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심했던 2009년 9월(8만4000명) 이후 가장 컸다. 특히 6월달 줄며 전년동월 대비 감소폭은 지난 4월까지 1만명, 5월 2만9000명, 6월 4만8000명에 이어 7월까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늘며 지난달 예도 50만명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

다. 금융권 취업자 감소는 은행, 증권, 보험사 구조조정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은행권에선 외국계 은행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직원(4240명)의 15% 수준인 직원 65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한국SC은행은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지점 50개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점포 폐쇄 추세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이란 분석이 중론이다.

보험업권에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됐다. 상반기에 삼성생명이 전직 지원,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1000여명을 줄였고 교보생명에서도 15년차 이상 480명이 희망퇴직했다. ING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에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증권사에선 연초 매각을 앞뒀던 동양증권에서 500명 이상, 4월에는 삼성증권에서 300명 안팎이 희망퇴직 형태로 회사를 떠났다.

강구기 기자 kkk@

신한銀, 새희망홀씨대출 은행권 첫 1조 돌파

신한은행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은행권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고객에게 은행권 대출을 지원하고자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 후 서민 고객에

대한 새희망홀씨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1조921억원으로 금융권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저신용자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가능등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새희망홀씨대출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계열사인 신한저축은행과 연계해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와 신용관리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kimji@

[명사초청 특별강좌 서비스 제3편]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百年之大計 더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초청 세무·회계·경영 실무강좌 무료 공개!

ERP, 그룹웨어 등 경영정보화 솔루션을 보급하여 우리나라 기업정보화를 선도해온 더존이 세무, 회계 및 경영관리 분야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실무이론지식을 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신 IT기반으로 실무강좌를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합니다. 더존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명사초청 세무·회계·경영 실무강좌 무료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법인세 실무, 부가가치세 실무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회계실무"와 "4대보험실무"를 더존 홈페이지에서 조건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실무
(8시간 14차시)

4대 보험의 업무처리와 신고실무 전반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실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내용을 업무 단계별 사례 위주로 쉽고 상세하게 풀어낸 강좌

[강사]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 겸 공인노무사!
신현범 세무사

기초 회계 실무
(20시간 38차시)

회계와 부가의 개념부터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작성, 분석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핵심 이론과 함께 실무 사례도 곁들여 초급자도 정갈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강사]
기업회계의 세무 실무 분야 명강사!
김검순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핵심강의 : 5시간 19차시)
(종합강좌 : 16시간 49차시)

2014년 개정 세법부터 부가세 기초 이론과 실무 핵심 그리고, 담당자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신고/납부에 관한 핵심 체크포인트로 심도 있게 구성

[강사]
부가세 분야 최고 명성의 스타 강사!
한장석 세무사

법인세 신고 실무
(11시간 34차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상의 유의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요령 등 신고 실무로 일치게 구성했으며 실무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을 사례와 함께 요약

[강사]
경제 최고 명성의 법인세 실무 전문가!
배택현 세무사

▶ 명품강의 바로보기! 더존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에서 명사 초청 강좌 바로가기 클릭

※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각 강좌는 주제별로 동영상 파일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재는 PDF파일로 무료 제공하므로 프린트해서 볼 수 있으며, 책자로도 제공합니다.

www.duzon.co.kr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현대증권,
단 한 장의 카드로 세상 카드를 압도하다!



able Card

카드생활의 Remake Asset 카드생활에서부터 자산관리가 시작됩니다



할인 서비스 4가지 중 내가 선택한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된 혜택을!

- 선택1) SK주유소에서 주유 시 OK 캐시백 16배 적립(80원/L)
 - 선택2) 대형할인점 15% 할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선택3) 백화점 15% 할인(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롯데)
 - 선택4) 전국택시/KTX 15% 할인
- *연 4회 변경 가능, 선택 1~4)별 월간할인한도 이외에 전월 사용 실적에 따른 할인한도 차등 적용
*15% 할인의 경우 횡수(일/월) 및 최대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포인트 서비스 OK캐시백 포인트와 함께 재 탄생한 able point!

- 현대증권 포인트와 OK캐시백 포인트가 합산되어 사용 및 적립되는 포인트제도
- OK캐시백 포인트를 CMA통장에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현금상환서비스
- able point는 전국 45,000여 개의 OK캐시백 가맹점, able 포인트를, 현대증권 업무수수료로 결제 가능

금융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출금,이체,송금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의 당사 및 타사 이체 수수료 무료
 - 당사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 지점 창구 송금 수수료 무료
- *전월 실적 10만원 이상 시 적용

특별 서비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의 혜택을 입히다!

- 전국 50여개의 able 멤버십 제휴처에서 최대 40%까지 현장 할인
(서비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며, 사업장 별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카드문의 : 1588-6611 홈페이지 : www.hdable.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455호(2014년 2월 6일~2015년 1월 23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야말프로젝트 잡아라” 철강사 후판 전쟁

대우조선해양 추가 수주 가능성... 공급물량 더 늘 듯 현대제철 등 '철강 빅3' 극저온 후판 인증 작업 마무리 연말께 선정 2호 후판 공급업체 자리 놓고 경쟁 치열

대우조선해양이 '야말 프로젝트' 16척 중 총 10척을 수주한 가운데 국내 철강업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강사들은 야말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앞 다퉈 극저온 후판 인증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극저온 고성능 후판인 후판 A500, D500, E500 강종을 러시아 선급협회(RS)와 프랑스선급협회(BV)로부터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달 5

일 러시아선급협회와 프랑스선급협회로부터 극저온 후판 인증을 받았고, 동국제강은 극저온 후판 인증절차를 사실상 완료하고 납품을 위한 추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은 대우조선의 3월 수주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일본 JFE와 제품 개발을 공동 추진해 오며 극저온 후판을 개발했다.

야말 프로젝트는 러시아 서쪽 야말반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

업이다. 러시아 가스회사인 노바텍과 프랑스 토탈, 그리고 중국 CNPC의 대규모 투자로 진행된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10척의 선박 LNG선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계약을 포함해 약 50억 달러 상당의 상선을 수주하며 순조로운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16척을 모두 수주하게 되면 후판 공급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강사들은 수익성 악화 확률로 방안으로 야말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 16척 건조계약이 모두 체결되면 대우조선이 수주하게 되는 전체 규모는 약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에 달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 빅3은 극저온 후판의 인증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야말프로젝트 2호선 후판 공급을 놓고 더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전

망이다. 특히 선박선에 사용되는 극저온 후판의 가격은 일반 선급제 후판보다 1.5~2배 정도 비싸 철강사에게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선박선 1척당 건조에 필요한 후판은 3~4만톤으로, 총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척당 300억~4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야말프로젝트 선박선 1호와 2호 사이에는 계약 자체에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선박선 2호 후판사 선정작업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야말 프로젝트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1호선 후판사로는 일본 신니테츠스미킨과 함께 동국제강의 극저온 후판 일부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전자, 시설·연구개발 을 상반기 18조원 투자

LG도 3조 넘게... 투자목표 달성 무난할 듯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 상반기 시설(R&D)에 20조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올 상반기에 총 20조7912억원을 시설과 R&D에 투자했다.

삼성전자 올 상반기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에 10조1836억원을 투자했다. 사업부문 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6조3536억원 △디스플레이 1조4189억원 △기타 2조411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올해에 총 24조원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추세를 보면 당초 목표했던 투자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R&D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한 7조7351억원을 투자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올해 R&D에 15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 부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IT업계에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과 원천기술을 확보해 세계 산업 기술을 이끄는 진정한 선도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설비 신설에 1조6500억원을 투자했다. 올 한해 총 투자액 3조437억원 중 35%를 투자한 셈이다. 사업부문별로는 기타(1조3828억원) 항목을 제외하고 홀엔터테인먼트(HE)가 502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노텍(4000억원), 홈플러스이온(HA, 3255억원), 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MC, 3014억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LG전자는 향후에 1조9787억원의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R&D에는 1조8075억원을 투자했다.

LG전자는 “휴대폰, TV 등 중점 육성 사업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등제품’ 개발 및 핵심 기술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3D TV, UHD TV, 올레드TV, 스마트TV, LTE 스마트폰 등 글로벌 핵심 비즈니스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STX조선-성동조선 합병 추진

채권단, 통합운영 검토... 중소 조선사 합병 이어질지 관심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합병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을 합병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업황 불황의 여파로 2010년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STX조선해양은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지난해 7월 산업은행 등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들 조선사는 자율협약 준수를 위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업황 불황 장기화되면서 조기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이 두 조선사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해 자율협약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동조선해양은 대형설비를 갖추고 있

고 STX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부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또 STX다래의 철수 여파로 수주물량에 비해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두 조선사가 합병되면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중공업계의 구조조정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STX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두 조선사의 합병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 합병되면 이어 SPP조선, 대선조선 등 채권단 관리의 중소 조선사 합병이 이어질 전망이다. 채권단은 현재 통합 범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영화 감상에 딱”... LG전자, 34인치 21대 9 곡면 모니터

LG전자는 IPS(광시야각)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34인치 21대 9 곡면 모니터 '34UC97'를 국내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WQHD(3440x1440) 해상도를 적용해 기존 풀HD보다 238% 넓은 화면 표현이 가능하다. 또 맥스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한 스피커로 영화 감상에 효과적이다. 가격은 145만원. LG전자는 내달 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일 가전박람회 'IFA 2014'에 전시하고,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LG전자

상반기 ‘연봉킹’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113억4500만원으로 1위 권오현·정몽구 등 뒤이어 5억 이상 동기임원 192명



1, 2위가 모두 나왔다. 더불어 정몽구 현 대차그룹 회장(49억4000만원), 구자열 LS그룹 회장(48억3100만원, 퇴직금 포함), 김영대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신종균(사장)이 올 상반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1279개사 중 올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전·현직 동기임원은 모두 192명이다.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금융권 제외) CEO 중 올 상반기 보수액은 신 사장이 113억45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DS(부품) 부문을 총괄하는 권오현 부회장이 53억7400만원으로 뒤를 이어 삼성전자에서

대성산업 회장(38억9800만원, 퇴직금 포함)이 지난해 상반기 '보수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35억1200만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30억5000만원), 윤부근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 사장(28억8600만원), 신영자 호텔롯데 사장(27억9200만원), 구본무 LG그룹 회장(25억9600만원) 등이 10위권에 올랐다.

정호진 기자 js62@

기아차 'K4' 중국 출격

10월 장수성 공장서 양산 돌입 미국산 '신형 카니발' 출시 예정

기아자동차가 오는 10월 중국과 미국에서 'K4'와 신형 '카니발'을 잇달아 선보인다.

18일 기아차에 따르면 장수성 엔진에 위치한 중국 3공장서 10월부터 K4 양산에 돌입한다. 또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형 카니발이 출시될 예정이다.

K4는 K5와 K3의 중간 모델로 30~40대

가장을 겨냥한 중형 세단이다. 최근 대체가 된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를 반영해 1.6ℓ 터보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K4 출시로 중국 시장의 선점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K시리즈는 K2, K3, K5 등 3가지로, 올 들어 7월까지 각각 8만7363대, 9만5444대, 3만1933대 등 총 21만4740대

가 팔렸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는 신형 카니발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 9년 만에 새로 출시된 신형 카니발이 국내에서 출시 두 달 만인 7월 베스트셀링카 2위에 오르며 경쟁력을 인정받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아차는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락사업실: 02-799-2663
-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트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셋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도장 품질은 '먼지와와의 전쟁' 차량 생산라인 중 가장 청정

열전! 테크리더 현대차 도장부

도장부 오케이반, 점검 업무담당 모서리·코너 불량률 최소화 노력

차량에 색을 입히는 도장은 섬세한 작업이다. 흠집 없는 새 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려면 도장 과정에서 티끌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의 배후진 도장부 오케이반 반장은 도장라인의 생명으로 '청정도 관리'를 꼽았다. 배 반장은 "도장라인은 돌아가는 시간 내내 '먼지와와의 전쟁'을 하는 장소"라며 "최상의 도장 품질을 위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자동차 생산라인 중 가장 청정한 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도장은 차체가 라인에 도착하면 '전작 샌딩'을 먼저 진행한다. 전작 샌딩은 차체에 색감을 입히기 전에 차체 내·외부에 묻어 있는 이물질들을 샌드 페이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표면이 매끄러워야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전작샌딩은 종종 기초 공사에 비유된다.

다음 작업은 차체의 기초 화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 도장'이다. 이어 중도 도장을 완료한 차체 외관은 샌드 페이퍼로 다시 한 번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화장에 비유되는 '상도 도장'을 통해 무채색의 자동차는 도로 위의 미학을 갖춘다.

배 반장은 "도장은 전 라인이 자동화돼 있지만 도장이 제대로 됐는지 오직 사람의 눈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도장부 오케이반에서 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업무 능력은 섬세한 눈길과 손길인 셈이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도장부 오케이반은 배 반장을 비롯해 모두 2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은 신차가 투입됐을 때 더욱 긴장한다. 새 차가 도로를 처음 달리는 데 불량이 많으면 고객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



현대자동차 충남 아산공장의 도장부 오케이반 직원들이 도장라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청결도 유지를 통해 도장의 불량률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다. 최근 아산 공장에서는 신형 LF쏘나타를 생산하면서 도장부 오케이반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배 반장은 "신차가 투입되면 수밀 관련 취약 부위의 실링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더욱 신경 써 점검한다"며 "차체의 모서리나 코너의 끝단 부위 등 세밀한 부분의 도장을 면밀히 살피서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량률을 줄이는 것도 도장부의 핵심 업무다. 배 반장은 "작업자는 장갑 및 토시, 작업복 착용뿐 아니라 청결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샌딩작업으로 발생하는 미세가루를 제거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며 "도장 자동기의 오염 확인, 도료의 분사가 적절하지 등 기계적인 부분에도 세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24시간 먼지와와의 전쟁, 불량률을 줄이는 차량 생산의 참병, 도장부에 걸맞은 표현은 없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갤럭시' 시리즈 메탈 변신은 무죄

'갤럭시 알파' 첫 적용 고급화 전략 다음달 출시 '노트 4'에도 이어질 듯



업계에서 유출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4 추정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의 갤럭시노트 시리즈보다 각진 디자인과 메탈 소재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갤럭시 노트4 사양은 5.7인치 쿼드HD 디스플레이(1440

'메탈' 소재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시장에서 제조사들이 차별화된 하드웨어를 내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메탈 소재를 적용한 '갤럭시 알파(사진)'를 출시했다.

갤럭시 알파(두께 6.7mm, 무게 115g)는 올해 출시된 갤럭시S5(두께 8.1mm, 무게 145g)보다 뛰어난 휴대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메탈 소재를 적용해 한층 더 부각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상의 그림감을 구현했다.

화면 크기는 4.7인치 HD 슈퍼 AMOLED(1280X720)이며, 운영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 4.4.4 킷캣 플랫폼을 탑재했다. 후면과 전면 카메라는 각각 1200만, 210만 화소다. 배터리 용량은 1860mAh이다.

기본 기능으로 초절전모드, 지문인식, S 헬스 등을 지원하고 삼성 '기어2', '기어 핏' 등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메탈 스마트폰을 향한 도전은 내달 공개 예정인 '갤럭시노트4'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60)와 쿼드 스냅드래곤 805의 새 버전 또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버전 프로세서 등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심박측정, 지문인식뿐 아니라 자외선 센서 등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역시 아이폰5 시리즈에 메탈 소재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 달 발표가 유력한 '아이폰6' 역시 메탈 소재 채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4.7인치, 5.5인치 두 가지 모델을 준비 중이며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과 메탈 스마트폰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소재가 새로운 이슈로 관심 받고 있다"며 "중국업체의 공세와 스마트폰 시장 경쟁 과열 시기에 메탈 소재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 포인트"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삼천리자전거 '내수 집중' vs 알톤스포츠 '해외공략' 두 바퀴로 달리는데 길은 다르네

국내 자전거 시장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성장 로드를 달리고 있다.

1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알톤스포츠는 해외로 눈을 돌려 수출을 늘려가면서 세를 키우고 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자전거 시장도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양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천리자전거는 국내시장에서 연령·성격에 맞는 다양한 자전거를 출시하며 내수시장 잡기에 나섰다. 하이브리드, 로드자전거는 물론 유아·아동 등 연령별로 특화된 자전거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유아기 아동들에게 특화된 무모차형 자전거와 입문용 로드바이크 'XRS', 하이브리드 자전거 '쏘울', '모멘텀' 등 각 기능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 자전거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최근 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천리자전거와 달리 알톤스포츠는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바이크쇼에 진출하며 남미와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 자전거 수출을 시작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지역을 포함해 일본·태국·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 자전거를 수출, 해외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손잡고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전기자전거를 3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매출의 20%가량을 해외 수출로 달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 해외 비중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BMW, 쿠페형 디자인에 SUV 공간 '뉴 X4' 출시

BMW코리아가 18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새로운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뉴 X4를 공식 출시했다.

BMW 뉴 X4는 주행 성능이 뛰어난 쿠페형 디자인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공간이 더해진 중형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다. 이번 국내에 출시하는 모델은 '뉴 X4 x드라이브20d x라인'과 '뉴 X4 x드라이브30d M 스포츠 패키지'로 총 2종이다.

뉴 X4는 전장 4671mm로 전작인 X3보다 불과 14mm밖에 길지 않지만, 전고를 1624mm로 낮춰 노면에 36mm 더 밀착된다. 시트 위치도 X3보다 앞좌석이 20mm, 뒷좌석은 28mm 더 낮으며, 이를 통해 정통 스포츠 쿠페의 감각을 창출한다.

뉴 X4는 유로6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최신 BMW 이퍼섀트 다이내믹스 기술이 적용된 신형 엔진이 장착됐다. 또 최적화된 공기 역학 디자인, 지능형 초경량 구조,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장치, 8단 자동 변속기 등이 어우러져 효율성을 높였다.



뉴 X4 x드라이브20d는 2.0ℓ 트윈과워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발휘한다. 또 뉴 X4 x드라이브30d는 3.0ℓ 트윈과워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돼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57.1kg·m의 사양을 갖췄다.

가격은 BMW 뉴 X4 x드라이브20d x라인이 7020만 원이며, 뉴 X4 x드라이브30d M 스포츠 패키지는 8690만 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www.better.go.kr

국민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규제애로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규제개혁신문고

검색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가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205호 규제개혁신문고TF
전화: 044)200-2639 팩스: 044)200-2546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두달만에 세계 스타트업 대회 2위

블루폴드, 5개국 450개 참가 베이징 OTEC에서 섬유보호제 '텍스드라이' 발수코팅 기술력 인정

국내 스타트업 블루폴드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OTEC' 스타트업 경진 대회에 참가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정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인 스타트업 경진대회로 한국의 스타트업 12곳을 비롯해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총 5개 국가에서 45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이 중 국가별 예선을 거쳐 총 15개의 스타트업이 결승에 진출했는데, 국내의 발수코팅업체 블루폴드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1위는 중국업체가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서는 블루폴드에 이어 커플 SNS업체 VCNC가 9위를 차지해 우수상을 받았다. 블루폴드는 제조 스타트업으로 초발수와 초친수 기술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드는 기업이다. 미세한 나노사이즈의 표면 돌기를 통해 옷에 흡착한 물이나 오염을 특수 코팅제로 밀어내는 기술을 상용화해 섬유보호제 '텍스드라이'등을

생산하고 있다. 서울대 화공과 출신을 중심으로 지난 해 여름 창업, 지난 6월에 블루폴드 법인으로 전환했다.

김봉현(사진) 블루폴드 대표는 "중국 안방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 세계 많은 팀을 제치고 2위를 한 것에 대해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다"며 "법인 설립 2개월만에 성취한 결과여서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수출의 길을 더 확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9위를 차지한 VCNC는 폐쇄형 SNS '비트윈'을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로 박지원 대표가 지난 2011년 설립했다. 커플 SNS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일본 진출 1년만에 다운로드 100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OTEC 스타트업 경진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OTEC'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블루폴드 매니저 황성호씨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회에 처음 참가한 것으로 한국기업이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중국 심사진도 놀라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측에서도 블루폴드를 비롯한 국내 스타트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국 현지의 벤처캐피탈(VC) 10곳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가운데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Q&A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글로벌 스타트업

쇼케이스도 동시에 진행됐다. 스타트업 쇼케이스는 150명의 중국 VC 앞에서 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로, 국내에서는 말랑스튜디오, 피카게스트, 파이브박스 등 3개 스타트업이 참가했다.

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는 "중국 내에서도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자국으로 데려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지상파·유료방송 재전송료 갈등 방통위, AG 중계 앞두고 뒷짐만

월드컵 '블랙아웃' 재현 전망에도 해결책 대신 분쟁완화 초점 문제

브라질월드컵 당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전송료 갈등으로 인한 '블랙아웃(송출중단)'이 인천아시안 게임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1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MBC는 최근 SO(종합유선사업자)를 비롯해 IPTV(인터넷TV) 방송사, 포털 등 30여곳에 '인천 아시안게임 콘텐츠 유통 공시 및 담당자 지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브라질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추가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상파와 관계자는 "인천아시안 게임이 브라질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추가 송신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료방송사 측은 추가 재송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에 기본적으로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급하

고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자칫 브라질 월드컵 때처럼 일부 유료방송에서 인천아시안 게임을 볼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선 블랙아웃 문제가 또다시 가시화되자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분쟁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4일 발표한 3기 방통위 정책과제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됐던 지상파와 의무재송신 제도개선, 재전송료 산정기준 정립 등은 빼놓고 처리했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와 의무재송신과 관련해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갈등이 심화돼 시청자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중재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세워놓고 있다.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 재송신료 문제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방통위의 중재로 고정형 TV에서는 월드컵을 볼 수 있었으나, 모바일과 일부 포털에서는 브라질월드컵 시청이 불가능했다.

김병근 기자 nova@

아시아 中企리더 서울서 모인다

10월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건전한 생태계·기업가 정신 논의

"아시아 중소기업들이 오는 10월 한국에 집결한다. 아시아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 입안자, 학자, 기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와 기업가 정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18일 세계중소기업협의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과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ACSB)는 오는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중소기업대회'를 개최한다. 일본·중국·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장·차관급 인사들과 기업가·학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회 대회가 열렸으며 올해 대회 주제는 '아시아 중소기업의 글로벌화:효율성과 의미성(Doing well and Doing good)'이다.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는 세계중소기업협의회 내의 아시아 지역위원회 격으로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싱가포르·대만 등 아시아권 창립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세계중소기업

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해 6월 발족된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장도 함께 맡고 있다.

제2회 아시아중소기업대회에선 △학자들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정책 포럼 △청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ACSB 칼리지 등이 진행된다. 각각 장관관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발표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0여개국의 기업 건전성 조사결과를 놓고 의견을 교류할 계획이다. 또 외국 대학생 50여명도 ACSB 칼리지를 통해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열린 토론을 펼친다.

이번 대회의 콘퍼런스 세션에서 한경화 중기청장이 김기찬 아시아중소기업협회장과 공동 의장을 맡는 등 정부의 관심도 높다.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는 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기찬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장은 "아시아중소기업대회를 통해 아시아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해야 할 과제는 물론, 정당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유 기자 thec98@

KT, 대용량 OLT 전국 공급

KT는 지금보다 10배 빠른 1Gbps(초당기가바이트)급 인터넷 속도 제공이 가능한 OLT(Optical Line Terminal)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KT가 공급하는 대용량 OLT 시스템은 기존 초고속 인터넷 FTTH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가입자 수용량은 8배, 동시 트래픽 처리용량은 40배 수준으로 향상됐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고객들은 전용모뎀을 통해 1Gbps급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용모뎀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KT측은 이 시스템이 전국에 공급되면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초고화질(UHD) TV와 사물인터넷(IoT) 등 전송량 폭주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5월까지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용량 OLT 시스템의 시범 적용을 마쳤으며, 6월 수도권 확대 적용 및 품질 검증에 나선 바 있다. KT는 올해 말까지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KT 서창석 상무는 "더 나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LG 'G3A' "T액션 체험해보세요"

LG전자가 SKT 전용 스마트폰 'LG G3 A' 출시를 기념해 'G3 A' 대표 UX인 'T액션' 체험이벤트를 28일까지 진행한다. LG전자 모델이 손가락으로 터치하지 않고 움직임이나 얼굴을 인식해서 실행이 가능한 'T액션'기능을 선보이기 위해 클리버를 낀 채 'G3 A'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오늘부터 전면 금지

18일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보유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으나,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과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장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태진 기자 lipippo@

신입통신자원부 MOTIE 한국전력공사 에너저컨트롤러

플러그를 뽑는 우리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생활 습관은 절전. 전자제품을 쓰고 난 후 쓰지 않는 플러그까지 꼭 뽑는 우리 엄마, 어때요? 칭찬 받을만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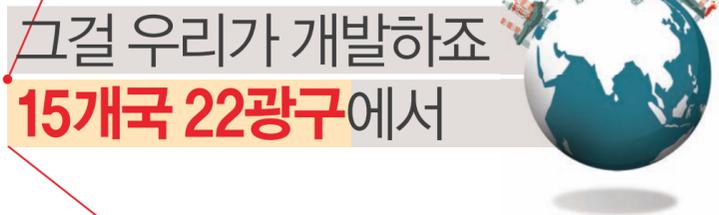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 14:00 - 17:00

칭찬릴레이 이벤트에 동참해 주세요!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칭찬릴레이를 시작합니다. www.powersave.or.kr

가정: 안보는 TV 끄기, 청소기 사용 자제, 에어컨 사용 자제

사무실: 콜맵시 입기,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선풍기 사용하기

상점: 문열고 냉방 자제, 적정온도 냉방, 전등 끄기



과거부터 현재,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 혁신하다 > **SK** 이노베이션

수도권 아파트값 6주째 올라 매매·전세가격 상승폭 커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전세가격은 0.09% 각각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서울의 상승폭이 확대(0.02%→0.06%)되며 전국 기준 7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0.07%→0.09%)됐다. 매매가격은 LTV, DTI 상향 조정 등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시행에 따라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문의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은 서울과 경기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지방(0.05%)은 산업체 근로자 수요 및 혁신도시 기관 이전의 영향으로 울산이 상대적으로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

LTV·DTI 규제완화 효과

이사철 맞아 전셋값 올라

아파트 분양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주택보조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소재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833만원대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9%)과 6대 광역시(-0.2%)의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지방(0.4%)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의 가격 하락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012만4000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월(1026만6000원) 대비 1.4%, 전년 동월(1072만1000원) 대비 5.6% 각각 하락할 수 있다.

전세가격은 방학시즌 및 가을 이사철 수요, 전반적인 매물 부족이 지속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며 경기와 인천이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강영관 기자 kwan@

주목! 이곳

SH공사 내곡지구 2·6단지

내곡 마지막 물량...교통·교육·자연 '3박자'

전용면적 59·84㎡ 이하 134가구 일반분양
가구당 분양가는 2억9천만~5억6천만원
신분당선 이용 강남역 10분·판교 1정거장
8학군에 위치...청계산 계곡물 단지 관통

강남역까지 10분, 판교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내곡지구가 마지막 물량 분양에 나선다.

분양을 실시하는 물량은 2단지와 6단지 아파트로 평소 내곡지구 입성을 노렸던 청약자라면 59·84㎡(이하 전용면적) 일반분양분으로 134가구가 공급되는 이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서울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21~22일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곡지구의 최대 장점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강남 접근성이다. 내곡지구가 속한 내곡동 일원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최고의 친환경 첨단 주거단지인 판교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강남역은 3정거장, 판교역은 1정거장 거리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에 인접한 6단지에서 강남역까지의 거리는 10분을 넘지 않는다.

광역 철도망뿐만 아니라 단지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동쪽으로는 분~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내곡IC), 북



SH공사의 내곡지구 2단지와 6단지 조감도.



사진제공 SH공사

쪽으로는 양재대로(47번 국도) 등과 인접해 있으며 양재대로와 원릉로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광역교통망을 놓고 볼 때 강남 도심보다 월등하다.

내곡지구의 또 다른 장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청정 주거지역이라는 것. 단지 전체가 청계산, 구룡산, 인릉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 산에서 흘러내린 청정 계곡물이 단지를 관통하고 있다.

내곡지구가 속한 강남의 매력은 교육인프라와 생활권의 시설이다. 내곡지구 내에 언남초등학교가 7월 중 이전 개교할 예정이고 인근에 언남중, 영동중, 언남고, 상문고, 은광여고 등 8학군 명문학교들이 소재하고 있다. 또 소위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는 강남교육특구와도 근접해 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농협 하나마트, 코스트코, 이마트와도 가깝다.

이번 2단지와 6단지의 분양물량은 총 381가구다. 우선 2단지에서는 59㎡형 72가구, 84㎡형 147가구 등 219가구가 공급되고 6단지에서는 59㎡형 109가구, 84㎡형 53가구 등 16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2단지 59㎡형이 2억9000만원대, 84㎡형이 4억5000만원대다. 용적률이 낮은 6단지는 59㎡형이 3억6000만원대, 84㎡형이 5억6000만원대다.

84㎡의 경우 인근 주요 단지 시세가 6억~7억원선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내곡지구는 강남대로 라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포함해 어린이와 노약자가 함께 거주하기 위한 최적의 단지다. 강남권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청계산에 둘러싸여 있어 환경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왜? 어째서!

냉장전용 유산균을 선택해야 하는가?

Q. 당신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1. 건강전문가 약사들이 선택한 냉장 유산균(현 가맹약국 2,500호 돌파)
2.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타민하우스가 만드는 유산균은 믿을 수 있으니까
3. 품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장용성 캡슐로 장까지 살아가는 프리미엄 유산균 550

- 국내 유일 550억 CFU 생균 투입!
- 12종 유산균 +아연+셀렌
- 전 과정 냉장유통 시스템
- 공기습기차단 PVDC 특수포장



우리가족 생생 유산균

- 1캡슐 300억 CFU투입
- 식약처인증 안전성 높은 8종의 균주
- 식물성 캡슐 사용
- 물과 함께 섭취



우리아이 생생 유산균

- 1포 60억 CFU투입
- 배변활동을 생각하는 우리아이 제품
- 無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 이유식 분유에 타서 먹는 유산균



Probiogut은 건강기능식품기업 비타민하우스의 냉장유통 유산균 전문 브랜드입니다.
★냉장유통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비타민하우스를 꼭! 확인하세요.



전국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만나보세요.



인천경제구역 '훈풍'... 집값 뛰고 거래 늘고

투자이민제 확대 등 호재...시장 회복세
청라·송도·영종 인구 늘며 미분양 소진
청라 롯데캐슬·송도 푸르지오 등 분양

한동안 침체됐던 인천 청라·송도·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라·송도·영종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북해리조트) 개발, 하나금융타운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집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구는 21만107명으로 올해 1월(19만7212명)보다 6% 이상 증가했다. 인구가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도 생기가 돌고 있다. 6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는 서구(570가구), 연수구(360가구), 중구(196가구)의 매매 거래량은 총 1126가부로 올해 1월(799가구)보다 많았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청라지구가 위치한 인천 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 1월 3.3㎡당 673만원이었지만 7월 기준 702만원으로 700만원대를 첫 돌파

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도 올 1월 3.3㎡당 382만원에서 7월 402만원으로 400만원대를 첫 돌파했다. 특히 미분양 물량도 6월 현재 471가부로 올 1월(743가구)보다 57%가량 감소했다.

송도와 영종지구의 집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가(3.3㎡당 768만~788만원)와 전세가(3.3㎡당 488만~531만원)도 올랐고, 중구 역시 아파트 매매가(3.3㎡당 679만~686만원)와 전세가(3.3㎡당 313만~330만원)가 상승했다.

롯데건설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M4블록에서 청라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3층, 7개동, 전용면적 113-141㎡, 828가구 규모다. 현재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담보대출 50%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지원해준다. 여기에 잔금 30%도 36개월간 유예시켜 주고 있다.

호반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33층, 15개동, 전용면적 63-113㎡ 총 1834가구의 대단지다. 대우건설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공구에서 '송도 아트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며 한라산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4블록에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를 분양하고 있다.

강영관 기자 kwan@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8/18 (월)	접수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중흥S-클래스리버시티 3순위	062)364-0001	
			서구	매월동	한국아델러움 3순위	062)528-7700	
			남구	신정동	협성휴포레신정	052)276-1188	
8/19 (화)	접수	부산	중남구	홍성동	홍성리서아파트 1순위	041)645-0900	
			서북구	정릉동	정릉공예그린(정릉10구역) 1,2순위	02)941-7800	
			강서구	신호동	부산사랑으로부영3차(2104B) 1,2순위	051)832-5317	
8/20 (수)	발표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부산사랑으로부영5차(2105B) 1,2순위	051)832-5317	
			고양시	삼송동	고양상송A18(국민임대)	1600-1004	
			경북	상주시	함창읍	상주함창B(공공분양) (~8/21)	054)531-0798
8/21 (목)	접수	서울	서초구	정릉동	정릉공예그린(정릉10구역) 3순위	02)941-7800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부산사랑으로부영3차(2104B) 1,2순위	051)832-5317
			전북	남원시	월락동	남원풍산누리안(공공임대)	063)631-6500
8/22 (금)	접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2단지(공공분양) 1,2순위	1600-3456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6단지(공공분양) 1,2순위	1600-3456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호반베르디움(A2-8)	1688-1131
8/22 (금)	발표	경기	태백시	소도동	태백소도(국민임대)	1600-1004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물금지구(차EG) 1,2순위	1899-0557
			경기	양평군	양평읍	한신휴플러스	031)774-3130
8/22 (금)	접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2단지(공공분양) 3순위	1600-3456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6단지(공공분양) 3순위	1600-3456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신서혁신A-2(국민임대)	1600-1004
8/22 (금)	발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중흥S-클래스리버시티	062)364-0001	

※(주) : * = 오피스텔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8월 셋째 주에는 △서울 성북 '정릉공예그린' 349가구 △부산 강서 '부산사랑으로부영3-5차' 2387가구 △서울 서초 '내곡지구2-6단지' 381가구 등 총 3454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공공임대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 중 69.1%(2387가

구)를 차지하며 분양물량이 가장 많다. 오피스텔은 △울산 남구 '협성휴포레신정'의 청약 일정과 △서울 강서 '마곡역현대힐스테이트에코' △경남 진주 '트레젠엘가'의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美투자 '큰손' 어떤 종목 사고 팔았나

13F 2분기 분석, 엘리아넬 매입... 이베이·GM 매도
버크셔해서웨이, 버라이즌 지분 늘리고 디렉TV는 줄여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등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는 투자계의 거물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을까.
버크셔해서웨이와 소로스펀드매니저인 트 등 미국 주요 헤지펀드와 기업이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투자보고서(13F)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엘리아넬을 비롯해 엘라간 구글 윌리엄스컴퍼니 디렉TV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F 분석기관 웨일스워즈담닷컴은 15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고, 주요 매도 종목에는 이베이 제너럴모터스(GM) SLM 보다폰 달러제너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엘리아넬은 대니얼 린이 이끄는 서

드포인트가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서드포인트는 지난 2분기에 4560만 주를 엘리아넬 주식을 사들였다. 주식 가치는 10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스티븐 파인버그의 서버서비스캐피탈매니저먼트가 같은 기간 엘리아넬의 주식을 4150만 주를 늘렸고, 존 폴슨의 폴스앤컴퍼니가 200만 주 사들였다. GM의 금융자회사였던 엘리아넬은 미국 정부의 공격자금 투입 이후 지난 4월 상장했다.
보톡스가 유명한 엘라간은 최근 밸리언트와 퍼머슈어컬스의 적대적 인수 시도 이후 시장에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밸리언트와 함께 엘라간을 노리는 빌 에크먼의 퍼시픽스퀘어가 2830만 주를 매입했다.

美 투자기관 2분기 주요 매입·매도 종목

기업	증감률(%)
엘리아넬	7.3
엘라간	6.3
구글	4.8
윌리엄스컴퍼니	4.7
디렉TV	4.5
달러제너럴	-4.3
보다폰	-4.8
SLM	-4.8
제너럴모터스	-5.2
이베이	-5.7

규모는 49억 달러에 달한다. 폴슨 역시 엘라간 주식 560만 주를 사들였다. 엘라간의 주가는 올들어 40% 이상 급등했다.
투자업계의 거물들은 지난 2분기에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의 주식을 1470만 주 팔아치웠다. 이는 13F 제출 기관이 처분한 주식의 5.7%에 해당하는 것이

다.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 정도만 300만 주를 매입했다.
사상 최악의 리콜 사태로 고전하고 있는 GM 역시 주요 투자기관들이 투자 규모를 5.2% 낮췄다.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소로스펀드 매니저먼트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의 풋옵션 규모를 60% 늘렸다는 것도 이번 13F의 특징이라고 보도했다. 소로스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증시의 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는 미국 4대 케이블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과 1위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의 지분을 늘린 반면, 디렉TV 코노코필립스의 지분을 줄였다. 이번 조사는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3F 제출 보고시한은 14일까지였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ismin@

글로벌 리더

노키아 라지브 수리 CEO의 도전 “빅데이터 인프라 승부”

휴대폰 사업부 매각한 뒤
본업 '통신기기' 흑자전환
日 이통 빅3에 LTE 제공
5G 이통망 개발도 참여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CEO. 사진제공 블룸버그

한때 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점유율 40%라는 압도적인 지위를 자랑했던 핀란드의 노키아, 노키아는 이제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휴대폰 사업부 매각은 지난 4월 마무리됐다. 제지회사로 시작해 고구, 휴대전화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교체했던 것이 노키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노키아가 이번에도 대담한 도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노키아의 라지브 수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일본 니혼게이아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사업 재구조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노리는 것은 빅데이터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한 효과로 지난 분기 25억1000만 유로(약 3조428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 노키아의 현재 본업은 통신기기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한다.
일본시장에서도 노키아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아이는 전했다. 회사는 이동통신 빅3에 통합에 불투명(LTE)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일본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난 달에는 파나소닉의 기지국 사업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NTT도코모의 5세대(5G) 이통망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키아의 사업 체제 관련해 수리 CEO는 “휴대폰 부문의 약 2만5000명이 MS로 옮겨갔고 회사에 남은 것은 약 5만5000명”이라며 “사업의 기동은 통

신기기와 디지털지도, 기술 라이선스 등 3개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사업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수리 CEO는 모바일 광대역 인프라 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TE망 구축 시장에서 우리는 유럽 2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미국 스프린트에도 우리 기술을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빅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세계 무선통신 수요가 1인당 하루 1기가바이트(GB)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모바일 기기 전용으로 제공한 디지털지도 서비스를 ‘Here’란 명칭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제공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
제지에서 휴대폰, 통신기기 그리고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 변신이야말로 노키아의 원천이라고 니혼게이아이는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윈도 '업데이트' 치명적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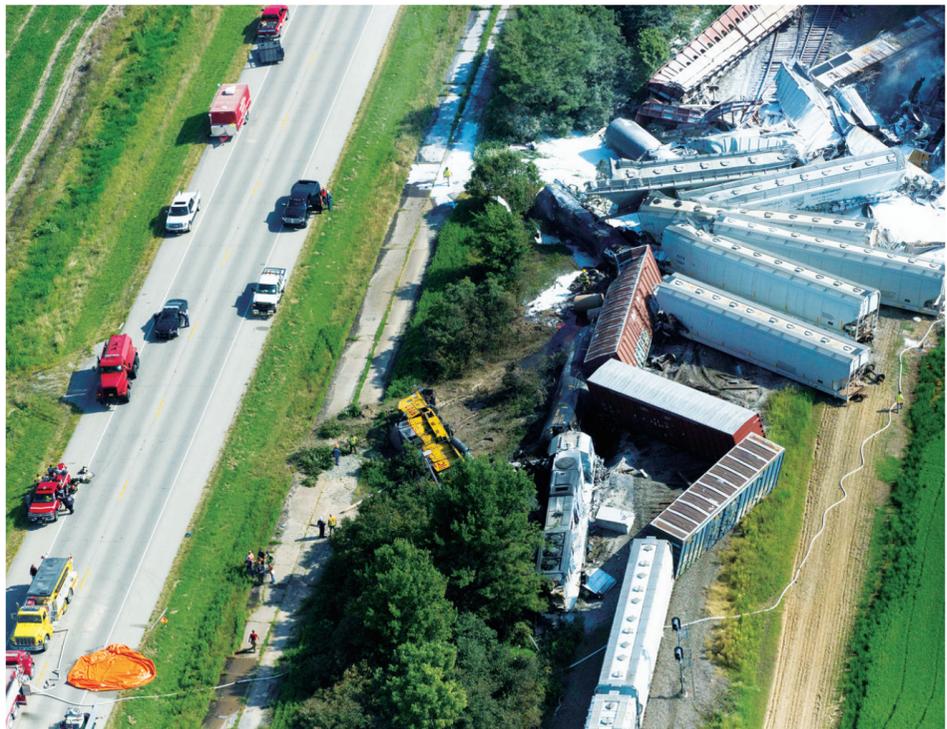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업데이트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 PC는 부팅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미국 주요 IT 매체들은 17일(현지시간) MS가 지난주 내놓았던 업데이트 중 하나가 오류를 일으켜 PC에 ‘블루스크린(윈도가 다운되면서 보이는 파란화면)’현상이 나타나고 일부 PC는 안전모드로 재부팅하는 것조차 안된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업데이트는 지난 12일 MS가 내놓은 9개 중 하나로 지원 문서번호는 ‘MS14-045’로 돼 있다. 해당 업데이트는 폰트와 윈도 커널 등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MS는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업데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거하고 관련 게시물을 수정·변경했다. 그러나 16일에도 윈도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의 업데이트가 사용자 PC에 다운로드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레노버, IBM 저가서버 인수 승인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PC 제조업체 중국 레노버의 IBM 저가서버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레노버는 지난 1월 IBM의 X86서버사업부 23억 달러(약 2조350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외국인들의 자국 기업 투자를 심의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이 건을 심의해 승인했다고 IBM은 전했다. X86 서버는 미국 통신네트워크와 국방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됐기 때문에 CFIUS는 이번 거래로 미국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왔다.
IBM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양측은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노버도 별도 성명에서 “미국에서의 규제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인수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쿠르드군, 이라크 모술담 탈환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 군 조직 페쉬메르가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에 뺏긴 모술담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이라크 쿠르드노동자당 간부 알리 아우니는 “모술담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전했다. 이번 모술담 탈환은 지난 6월부터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한 IS를 상대로 거둔 최대전과로 평가되며 탈환 과정에서 쿠르드군은 무인기, 전폭기 등 미국의 공중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군의 도움 없이 모술담 탈환에 성공한 쿠르드측은 이 지역을 기존 3개 자치주에 편입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올렸다. 모술담은 이라크 최대 규모의 담으로 북부 니네베주에 전력과 농업 관개용수를 제공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아칸소주 흑시 외곽에서 미국 운송업체 유니언퍼시픽 소속의 두 화물열차가 충돌한 가운데 기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이 사고로 열차 승무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다쳤다. 지난 2012년 오를라호마에서도 유니언퍼시픽 소속 열차가 충돌해 3명이 사망했다. AP연합뉴스

美 미주리주 비상사태... 근본 원인은 '가난'

위성도시 빈곤 갈수록 심화
2000년 이후 빈곤율 2배로
인종차별·경제불평등 불만

10대 흑인소년 총격사망 이후 일주일째 폭력파 시위가 관을 치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사태는 미국 교외도시의 빈곤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제이 너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이날 퍼거슨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도 내려졌다. 지난 9일 18세의 마이클 브라운이 양상을 머리 위로 들고 항복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이 소요사태의 일차적 원인이나 미국 위성도시 주민의 빈곤이 갈수록 심화한 것이 근본에 깔려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2만1000명의 주민이 사는 퍼거슨시는 세인트루이스의 위성도시 중 하나로 지난 2000년 이후 빈곤율이 두 배 급증했다. 빈곤이 가속화하면서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증오도 커지고 있다.
2000년만 해도 퍼거슨 주민의 중간 소득은 미주리주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연평균 3만7500달러(약 3800만원)로 미주리 평균인 4만7300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퍼거슨시의 2012년 빈곤률은



흑인소년 마이클 브라운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손을 울리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제공 블룸버그

22%로 2000년의 10.2%에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이 퍼거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지난달 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내 중심보다 교외에서 빈곤층 인구가 두 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공해가 심한 도심에 빈곤층이 살고 부유층은 교외에 거주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 그런 현상이 역전된 셈이다. 도심 주택 재개발에 따라 고급주택이 들어서면서 부유층이 다시 도심에서 살게 되고 반대로 빈민층은 교외로 쫓겨나게 됐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브루킹스 보고서 저자인 엘리자베스 니본 연구원은 “우리는 이미 도심보다 교외

에서 빈곤층이 더 많이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교외의 많은 주민사회가 보건환경 악화, 진학을 저조, 범죄 증가 등 생활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에도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퍼거슨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미주리주 고속도로소찰대는 17일 이틀째 야간통행 금지령이 이어진 가운데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위대 150여명에게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고 7명을 체포했다. 한편 집회와 관계없는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앱 구매 열기 식어... 성장 한계 왔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응용프로그램(앱) 구매 열기가 급속히 식고 있다. 이에 애플과 구글 등 IT기업들의 실적을 견인했던 앱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업체 딜로이트가 영국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개월간 어떤 앱도 다운로드받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31%에 이르렀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의 20% 미만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사용자들의 앱 다운로드 수 평균치도 지난해의 2.32개에서 1.82개로 감소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은 “이제 앱이나

기타 스마트폰 콘텐츠 구입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밝혀 모바일 게임업체나 기타 미디어업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딜로이트는 설명했다.
인기 모바일게임 ‘캔디크러시사탕’ 개발사인 킹디지탈엔터테인먼트가 지난 주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 것도 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속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FT는 덧붙였다.
폴 리 딜로이트 애널리스트는 “이미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주요 앱을 갖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원할만큼 앱들이 좋아질수록 새 앱에 대한 흥미가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가전제품 온라인 구매 56% 성장

올해 중국 상반기 가전제품 온라인 구매 규모가 830억 위안(약 13조 8000억)에 달해 전년 대비 56.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중국광명망이 보도했다.
전자상거래가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판매통로로 부상하면서 가전제품 판매량에도 영향을 줬다. 그중 알리바바의 ‘텐마오’와 징둥그룹의 ‘360바이닷컴(360buy.com)’은 시장의 9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가전제품 온라인 구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가전제품의 판매액은 23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7% 성장했고 휴대폰은 406억 위안으로 35%, 소

형가전제품은 160억 위안으로 80% 각각 성장했다.
대형가전제품에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온라인 판매량이 전체 시장에서 각각 15%, 10.5%, 13%, 12.3%를 차지했다.
많은 전자상거래업체 중 특히 360바이닷컴은 전체 가전제품 온라인 시장의 58%를 점유했다. 대형가전제품 부문에서는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바이닷컴은 타오바오 등과는 달리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직접 올려 판매하는 오픈마켓이 아닌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종합 쇼핑몰이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기업과 스타 박인비 후원한 KB금융

모두가 외면할 때 내민 손, 성적으로 보답

잡나가던 박인비(26·사진)의 모자에 KB금융 로고가 새겨졌다. 2013년 5월의 일이다.

지난해 초 박인비의 활약은 굉장했다. 혼다 LPGA 타이랜드(2월)를 시작으로 크라프트 나이스코 챔피언십과 노스 텍사스 슛아웃(이상 4월)을 차례로 제패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박인비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다. 메인 스폰서다.

박인비의 모자에서 메인 스폰서 로고가 사라진 지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 지난 2008년 US여자오픈에서 SK텔레콤 로고를 달고 우승했지만 2010년 계약 만료 이후 메인 스폰서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당시 박인비에게 스폰서는 사치에 불과했다. 골프를 포기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이다. 박인비는 눈물을 머금고 일본행을 선택했다. 그때부터 박인비의 모자엔 일본 SRI스포츠의 골프 브랜드 스티스 로고가 새겨졌다.

하지만 전화위부의 계기였다. 박인비는 일본에서 자신만의 스윙을 만들고 전매특허 쇼트게임도 완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감 회복이 최대 수확이다. 박인비는 일본에서 보낸 2년여의 시간 동안 외신상담하며 전혀 다른 박인비로 태어났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박인비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유에서다.



박인비와 KB금융이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 12월 열린 한·일 대항전에서다. KB금융의 눈에 비친 박인비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선수였지만 돋보이지는 않았다. 바로 그것이 많은 기업들이 박인비를 외면한 이유였다.

그러나 KB금융에 손해 보는 장사는 없었다. 박찬호(2001년), 김연아·이승엽(2006년), 박태환(2007년), 손연재(2010년) 등 종목별 한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는 KB금융의 손을 거쳤을 만큼 선수를 보는 안목이 탁월했다. KB금융은 박인비의 안정적이고 특집 있는 플레이에 다시 한 번 모험을 걸었다.

심성이 착하고 강한 멘탈을 지닌 만큼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KB금융의 판단은 이번에도 적중했다.

박인비는 KB금융과의 메인 스폰서 계약 이후 LPGA 챔피언십과 US 여자오픈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63년 만에 LPGA투어 메이저 대회 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KB금융그룹은 박인비의 메이저 대회 3연승의 금전적 가치를 최소 2000억원으로 평가했다.

박인비는 KB금융과 계약 당시 4년간 약 20억원의 후원을 받는 조건이 있었다.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보너스는 별도로. 여기서 사람들의 계산이 빨라진다. 과연 손해를 본 쪽은 어디일까. 결론을 앞둔 신랑·신부를 놓고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어리석은 계산이 또 있을까. 박인비는 실력을 겸비했지만 메인 스폰서가 없었다. 프로골퍼에게 메인 스폰서는 실력과 경제적 조건을 떠나 자존심의 문제다. 그때 KB금융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박인비는 실력으로 보답했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 성실하고 심성이 착해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선수, 돋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로 입증해 보이는 선수, KB금융에 이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을까. 오상민 기자 golf5@

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올해는 휴가도 가지 않고 청와대에서 머무셨다지요. 이라크 공격을 지시한 후 여름휴가를 즐기며 골프 치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사고로 휴가를 가신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만 이런 때일수록 속세를 떠나 심신을 달래며 큰 구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최근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를 살려 달라' 하셨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에 가라앉고 있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에 많은 공감을 하리라 생각되어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경제문제에 관하여 진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겨우 10년 내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를 갖 넘어오므로 갈 길이 멀고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장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과거 1970, 80년대 추구했던 무조건적인 양적 성장이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 자타가 공인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OECD는 최

21세기형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근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져 조세제도 개혁을 주문했고, IMF보고서는 불균형을 외면하면 결국 성장을 낮추고 성장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아시아 각국의 분배 악화가 지속되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겨들어야 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셨다고 믿고 그 해안에 많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장이 중요하지 무슨 경제민주화냐'는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공약을 고수하셨기에,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 논리에 함몰되어 경제민주화 공약은 서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과연 경제민주화가 성장의 걸림돌일까요. 이 시점에서 왜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세월호 참사, 지하철 사고, 각종 대형 화재 등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까요. 성장 제일주의가 부른 참사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유형의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삶의 질이 개선될 성장을 원합니다. 그것이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제 2기 경제팀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툴(tool)이 20, 30년 전 성

장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이라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만 나타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리처드 이스탈린 교수는 1950년부터 70년까지 일본 경제를 연구해 소득수준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국민 삶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스탈린 역설(Easterlin Paradox)'을 발표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 빈 로빈 교수는 그 반점이 1인당 GDP가 2만 달러일 때라고 입증했습니다. 즉 소득이 2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의 행복수준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 소득의 증가와 행복 수준의 상승이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1인당 GDP가 5000달러를 넘어섰고 1995년 1만 달러, 2004년 1만5000달러, 그리고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위 이론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2007년 이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적 성장만 해도 성장의 과실에 만족했지만 그 이후에는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된 셈입니다. 국민 의식의 변화가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리서치가 1997년 국민을 상대로 '최우선 국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강국 진입'이라 응답한 사람이 46%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 엠브레인이 비슷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국민의 57%가 '삶의 질 개선'이라 답했고, '경제강국 진입'은 25%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져 1970, 80년대 성장 패러다임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성장 패러다임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와글와글

잠실에 잇단 싱크홀, 무서워서 걸어가겠나요

○"조화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권인사 5명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받기 위해 단체로 방북해 구실에 올랐다.



○"서울시가 잠실 일대의 취약한 지질과 지반 침하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석촌 지하철도 싱크홀 책임에서 제2롯데월드는 속 빠지는 분위기인데", "박원순 시장은 이런 얘기 나오면 속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전시행정의 1인자", "건설은 먹물거리가 없다. 인기 영합 주의로 대중대중 서울시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서울시, 잠실 일대 싱크홀 위험성 알고 있었다고? 동공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대형참사 일어날 뻔했잖아. 진짜 나쁜 인간들. 숨기기 급급한 공무원이나 건설사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등 비난 일색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네티즌들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조화를 보내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앉아서 조화를 받으러 오라니,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딨나", "조화를 받으러 북한에 가다니.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짧디짧은 김정은에게 책 잡힌 것도 아니고,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나 공금 해집다",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오늘의 **이웃사랑** www.baekn.com

교황 방한과 영화 '어벤져스2'의 평행이론은?

배 국남 님께서는 18일 다양한 기자 칼럼을 통해 대중문화계와 스포츠계를 비평했다. '최두선의 나비효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과 영화 '어벤져스2'의 한류 평행이론을 강조했다. 한류가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며 우리의 역량을 보여준 것처럼 한류의 근원지인 우리 사회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행동과 사상에서 우월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다. '오상민의 현상'은 '캐디 직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게재했다. 골프장 캐디의 근무환경이나 복지는 결코 나쁘지 않은데도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을 만큼 소속감이나 애착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캐디에 대한 골퍼들의 저급한 언행 때문이다.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일선 캐디와 골퍼를 치는 사람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웃들의 36.5℃'는 'JYJ, 공백 무색한 원전체... 원의 원전은?'을 언급했다. 16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JYJ 아시아투어 콘서트'에 총 10만여 명의 팬이 찾았다. 지난 4년간 국내 지상파 출연 제약을 겪어온 JYJ가 해외 팬과 진한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웃들 기자 flowerslee@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 5

- 1 남경필 이틀전 '군대간 아들 격정' 일간지 기고문 논란
2 갤럭시노트4, 스펙·성능 벤치마크 결과 유출
3 올 뉴 쏘렌토 UM 출시 임박... 이미지 공개 소식에 '들쭉'
4 석촌 지하철도 80m 동공 메웠던 흙의 행방은?
5 라이베리아서 에볼라 치료소 피습, 환자 17명 집단 탈출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 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골프용품선물세트, 가족네임세트, 손금네임세트, 손금네임택, 출원기념품, 스와로브스키보수기, 오너봉, 골프장갑, 골프티모음, 볼트시, VIP 골프기념품, 손금볼마커, 로고볼마커, 보석볼마커

正論

사회문제화 되는 '데이트 폭력'

이성간에 교제를 위해 만나는 '데이트'라는 말은 매우 낭만적이다. 특히 이성 파트너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호기심과 설렘도 크고, 이것은 성년이 된 스무 살 이후에도 이어져 데이트라고 하면 연극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공을 산책하는 것 등을 연상하게 된다.

또 가난했던 우리 젊은 시절에는 '재건 데이트'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가 연인들이 만나면 무작정 손잡고 걷는 것을 일컫었다. 그만큼 정춘 시절의 데이트는 만나기만 해도 좋았고, 나아가서 낭만적 미래를 꿈꾸게 되는 과정으로도 여겨졌다.

그러나 낭만성의 뒤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데이트가 연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성장과정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고 싶은 욕구와 질투 감정이 표출된다. 심한 경우 이러한 감정이 폭력과 결부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이다.

과거 데이트 폭력은 낭만성에 묻혀 있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폭력의 범주로 다루어져서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데이트하는 연인간의 폭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경우 연인들의 3분의 1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11.6%에서 최고 52.4%의 연인들이 폭력을 경험해서 미국과 비교해서도 그 범위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연인간의 폭력이라고 해서 그 정도가 약할 것이라



홍일표 국회의원·새누리당

고 보면 안 된다. 이화영 한국여성전화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들은 폭행, 폭언과 협박, 납치 및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을 겪었다. 특히 길거리에서 20분간 몸싸움을 했는데도 이를 본 누구도 신고해주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조사만 받고 그냥 풀려났다.

데이트 폭력은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학대 폭력 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것과 비교하면, 데이트 폭력은 아직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남성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의 성차(性差)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차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 해석이 곤혹스럽지만, 일반적으로는 폭력의 강도는 남성이 세고, 여성의 경우 욕설, 폭언이나 물리적 행사인 경

우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경기도 경찰청은 매년 데이트 폭력에 관한 통계를 따로 뽑고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수원 남부경찰서 등 10개 경찰서에서 접수된 데이트 폭력 건수는 453건으로 이 가운데 83건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다. 이 통계의 문제점은 데이트 폭력을 순수한 폭력행사로 국한하고 있는 점이다.

데이트 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상해, 감금, 폭행, 협박, 스토킹, 욕설, 폭언, 협박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형법상의 강간죄, 모욕죄, 협박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각종 특례법이 적용된다. 스토킹은 주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규율된다.

또 데이트 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가해자들은 그 뒤에 숨어 축소, 왜곡하려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일부일일 수밖에 없다.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나고, 이렇게 빈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주는 영향, 가정폭력의 경험을 통한 대물림, 학교폭력과 연관성, 유전적인 기질, 음주 등 다양하다. 또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지속성을 갖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2차 3차 피해를 막으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전무하다. 데이트 폭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대한 고려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데이트 폭력 예방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김준영의 이슈 마당발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과 사법, 행정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존속된다. 말 그대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닌다.

인권관련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게 인권위의 기본 목적이자 설립 취지다.

그러나 요즘 인권위는 사정이 다르다. 조금씩 존재의 당위성을 잃어가고 있다. 우선 국가인권위는 군(軍)의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다. 군내부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이다.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군 내부의 문제를 거론하지 못한다. 유일한 곳이 국가인권위라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군 내부의 인권침해 문제에 인권위는 냉담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인권위는 군의 진정 사건 가운데 75%를 각하했다. 나머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니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6.5%에 불과했다.

28사단에서 구타로 숨진 윤 일병 사건도 인권위는 각하 처리했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초, 유가족들이 "곳곳에서 상처와 피멍이 발견됐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유족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하라"며 헌병대에 경고장을 보낸 게 전부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맞짱을 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발 빠르게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과 사정이 달랐다. 인권위는 비난이 일자 참사 4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뒤늦게 성명을 내놨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였다.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며 또 다시 인권위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밀양 송전탑반대 농성장 철거 때에도 인권위 직원은 앉아서 땅만 바라봤다. 반대 농성장에는 노인들과 친주고 수녀들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끌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했지만 인권위는 호루라기 몇 번 분개 전부였다.

반대 농성자들은 앞서 강제철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농성장 철거 현장에서 무엇보다 인권위 직원 앞에서 농성자들의 인권은 없었다. 현장에 나갔던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것 아니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정이 이쯤되면 인권위 존재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진다. 국가인권위는 이 나라 최후이자 최고의 인권관련 기관이다. 제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려면 굳이 뾰든 수사기관이 뾰든 성역 없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만큼 독립성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배경이 진정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직속기관인 탓에 알아서 청와대 눈치를 본다든 비난도 이어진다. 과거 정부 시절 어렵게 만들어진 인권위마저 없어진다면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마지막 기관이 사라지게 된다. 인권위는 다시금 출범 초기의 당위성을 찾아가길 바란다.

온라인뉴스부 차장 junior@

객석

경찰의 기본 덕목은 '청렴'



한영민 아산경찰서 문포파출소장

사전적 의미로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인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으뜸 덕목 중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전하고 맑은 사회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 옛날 관리하면서 청렴했던 인물들이 많지만 그중에도 어사 박문수가 있다. 그는 사또나 암행어사가 되어도 남의 돈을 절대 갖지 않고 부정부패한 탐관오리들을 심판했다.

청렴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 건수가 연간 4만50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안전행정부의 엄정한 공직자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경찰에서도 2014년을 '경찰 청렴도 향상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전 경찰관을 상대로 동점을 호소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경찰조직을 청렴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서 멋진 대한민국 경찰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부정부패를 타도하고 청렴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청렴이라는 단어가 넘쳐나면서 국민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나 하나 잘 되겠다는 생각보다, 서로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때 부정부패는 없어지고 맑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이뤄질 것이다.

기자의 눈

교황 방한 이후 세월호 해법



김미영 정치경제부/bornnal@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 5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18일 출국한다. 소박하고 겸손한, 그러면서도 강인하고 따뜻한 성직자의 모습이 준 감독과 여운은 오래도록 이어지겠지만, 다시 꼭 막힌 국내 정치사회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니 답답함만 밀려온다.

이제는 정치권이 교황에 화답할 일만 남았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25일이 지나도록 정치권이 유족들의 손을 제대로 잡아준 때가 없었다.

활동기한 종료일이 열을 남지 남긴 세월호국조사특위는 시작부터 기 싸움을 벌였던 증인채택 문제로 청문회를 아예

열지 못하고 있다. 결단은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조사에 돌입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던 여당은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유족들의 뜻을 번번이 거부해왔다.

유족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1부속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절충된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했다. 거센 역풍을 맞아 윤신의 폭이 극히 좁아진 형국이다.

결국 여당의 결단 없이는 당장 코앞에 닥친 국정감사를 비롯해 모든 국회 일정이 울스름된 채 허송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서 유족들을 두고 이성도 전 문지식도 없다고 쫓아내리거나 노숙자 같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그만두고 그들의 요구에 늦게나마 부응해주길 바란다.

이투데이

社 是 正 道 言 論 經 濟 報 國 未 來 指 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온라인뉴스부, 시장부, 미래산업부, 국제경제부, 광고접수, 광고문의, 구독신청, 배달안내.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eol. Features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promotional text: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and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난징 유스올림픽 볼모델로 활동하는 박지은



중국 난징에서 개막한 2014 난징 유스올림픽 골프 종목의 볼모델로 선정된 박지은.
장세영 기자
photathink@

“골프 꿈나무 멘토로... 잊지 못할 경험될 것”

36명 볼모델 중 유일한 한국인 은퇴 이후 대학원 등 바쁜 나날 “골프도 엔터테인먼트 점목하면 세계적 투어로 발전 가능성 커”

1998년 US아마추어 우승, 2000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데뷔, 2004년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 LPGA투어 통산 6승, 박세리(37-KDB 산은금융), 김미현(37)과 함께 2000년대 초반 한국 여자프로골프의 트로이카로 군림했던 박지은(35)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16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개막한 2014 난징 유스올림픽 골프 종목의 볼모델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14-18세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이번 유스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미래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대회다. 2010년 싱가포르에서 1회 대회를 치렀고, 이번이 2회째다.

28개 종목 3800명의 선수가 출전해 13일간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는 총 36명의 멘토가 전세계 선수들에게 비전과 방향·노하우를 전수한다. 한국인은 박지은이 유일하다.

이에 박지은은 19일 중국 난징으로 떠나 일주일간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워크숍을 이끌 예정이다.

박지은의 골프 종목 멘토 선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선수 시절 최고 기량은 물론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지식까지 겸비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지만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멘토가 대신할 만큼 종목별 멘토 선정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엘리트 스포츠 집중 육성으로 학업 병행 운동선수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으로서 특별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박지은은 “대단히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전 세계 주니어 골퍼들의 볼모델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고민과 성장 과정을 진솔하게 전할 수 있게 돼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은은 2012년 11월 결혼 후 현역에서 은퇴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골프경영 석사 논문을 준비하는 등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 속에서도 골프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내 골퍼투어를 바라보는 시선도 남달랐다. “프로골퍼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한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갤러리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자신만의 엔터테인먼트 기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은 이어 “국내 프로야구 흥행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야구와 한국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적절하게 매치시켜 야구를 몰랐던 사람들마저 흥미를 갖게 했다. 국내 프로골프도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세계적인 투어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초등학교 때 골프를 시작해 방학이던 걸 모르고 자랐다. 휴가도 없었다. 오로지 골프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을 얻었다. 당분간은 평범한 박지은으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막판 뒷심’... 박인비 드디어 웃다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서 연장 접전 끝 대회 2연패 시즌 첫 메이저 정상...다섯번째 메이저 타이틀 거머쥐

박인비(26·KB금융그룹)의 막판 뒷심이 만들어 낸 우승이었다. 박인비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먼로골프장(파72·671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22억9800만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이로써 박인비는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브리타니 린시킴(29·미국)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선두 린시킴에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박인비는 4번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았지만 7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며 전반 라운드를 이븐파로 마쳤다. 이후 12번홀(파5)에서 버디로 한타를 줄인 박인비는 후반 2홀만을 남긴 상황까지 린시킴에 2타차 2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박인비와 린시킴의 운명은 후반 2홀에서 갈렸다. 박인비는 17번홀(파4)에서 5m 버디 퍼팅을 성공시킨 반면 린시킴은 파에 그치며 1타차 승부가 됐다.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박인비는 정확하게 파로 막았지만 불안감을 느낀 린시킴은 보기를 범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박인비는 18번홀에서 이어진 연장 첫 홀에서 파

로 막으며 린시킴의 퍼퍼팅을 기다렸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린시킴은 또다시 보기를 범하며 박인비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박인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올 시즌 2승이자 LPGA투어 통산 11승을 기록했다. 또 시즌 첫 메이저 정상이자 통산 5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안았다.

박인비는 지난주 마이어 클래식에서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과 연장 접전 끝에 2위를 차지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기쁨을 맛봤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켈러웨이골프)는 2타를 줄여 함께 8언더파 280타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와 공동 2위로 출발한 수잔 페테르센(33·노르웨이)은 3타를 잃어 함께 6언더파 207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29·미국)는 4타를 줄이며 뒷심을 발휘했지만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이미림과 함께 공동 7위를 마크했다.

이미나(33·볼빅)는 2타를 잃어 함께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1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은 함께 3언더파 285타로 신지은(22·한화)과 공동 13위를 차지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박인비가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사진은 6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 전 코스를 바라보는 모습. AFP연합뉴스

2014 HAPPY SALE

미국수입 가능성 스파이크 장착!

2014 SANYARO BRAKE OUTDOOR SHOES 등산화에 브레이크를 달았다!

신야로 2014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스파이크의 기능에 따라 밟지, 트래킹, 겨울산행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끄러움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약판매] 브레이크 등산화 40%할인!

- 기 간: 2014년 8월 29일까지 예약접수
- 배 송: 2014년 8월 30일 일괄배송
- 가 격: ₩210,000원 → ₩126,000원
- 사 용 품: 신야로 아웃도어 장갑 증정

브레이크 등산화 SM2440(250-285mm) SW2443(230-250mm) / SM2442(250-285mm) 신야로 콕스 아웃도어 장갑(등산, 자전거 겸용) ₩22,000

인천AG 남녀 축구대표 나란히 ‘금빛사냥’

男, 86대회 이후 28년만에 정상 도전... 女, 사상 첫 금메달 노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남녀 축구대표팀이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김신욱(26), 김승규(24·이상 울산), 박주호(27·마인츠)가 와일드카드를 합류한 남자 대표팀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28년 만에 정상에 도전한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광양 루니’ 이종호(22·전남)와 J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이용재(23·나가사키)를 공격수로 발탁했고, 올 시즌 K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승대(23·포항)와 이재성(22·전북) 등은 미드필더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올랐지만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김진수(22·호펜하임)와 브라질 월드컵 예비 엔트리(30명)에 포함됐던 장현수(23·광저우 부리)는 각각 수비수로 선발됐다. 그러나 믿었던 손흥민(22·레버쿠젠)은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금메달을 다툰 팀은 지난 2010년 광저우 대회 우승팀 일본을 비롯해 아랍의 전통 강호 이라크, UAE, 이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한국은 1986년 서울 아

시안게임 이후 단 한 차례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홈그라운드인 만큼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힌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다음달 1일 경기 파주의 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돼 본격적인 금메달 담금질에 들어간다.

여자 대표팀은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린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10년 광저우 대회 동메달이다.

문제는 지소연(23·셀시)과 박은선(28·로시안카)이라는 두 명의 해외출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최근 러시아 로시안카에 입단한 박은선은 리그가 끝나는 시점인 9월 28일 이후에나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어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지소연은 소속팀과의 협의에 따라 8강 토너먼트 이후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21일부터 NFC에 소집돼 일주일간 호흡 맞추기에 들어간다.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12년 만에 홈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어느 대회보다 금메달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각종 세균·곰팡이·담배냄새·악취... 당황하지 말고 에어비타로 끝!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철, 식중독균 등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왕성하게 번식하게 되고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 담배 냄새, 음식 썩는 냄새 등 각종 악취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에어비타는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을 최고 99.9%까지 제거해주는 초소형 공기정화기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방방마다 에어비타** 하세요.

- 하루 24시간 내내 사용해도 월 전기료 100원 미만 (누진세 미적용시)
- 필터 교환 필요 없이 물세척만으로 사용
- 세계 26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기정화기

실내 공기 걱정 뚝! 유지비 걱정 끝!

강력하고 경제적인 신개념 공기정화기

에스-에어비타



크기/무게
170 X 90 X 48(mm) / 152g

에어비타만의 AICI 기술로 제거되는 세균과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획득)



※ 위 시험성적은 시험기관의 제한된 규격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시험기관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 지킴이 에어비타와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특별 기획전”

행사기간 : 2014년 8월 18일 (월) ~ 8월 25일 (월)
본 행사 제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운전자 필수품! 차량용 공기정화기

카비타 IIS (차량용) 1개	USB-13 (차량용) 1개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1개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2개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2개 + 카비타 IIS (차량용) 1개	에스-에어비타 (가정용) 3개 + 카비타 IIS (차량용) 1개
59,800원	79,000원	129,000원 89,000원	258,000원 145,000원	317,800원 176,000원	448,800원 199,000원

※에스-에어비타(가정용)는 화이트 / 블랙 색상 선택 가능하며, USB-13(차량용)은 레드 / 초콜릿, 카비타 IIS(차량용)은 오렌지 / 다크그레이 색상 선택 가능합니다.

제품구입 / 기업·단체 특판 상담 : 1588-7025 www.airvita.net

Cover Story 수입차 거침없는 질주

수입차가 국내에서 크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끊임 없이 신차가 쏟아진다는 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20여개 수입차 업체들이 매달 신차를 쏟아내는 만큼 선택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의 모델은 한정돼 있다. 더욱이 이들이 내놓는 신차는 1년에 10대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다양성 측면에서는 단연 수입차가 앞서는 셈이다.



글로벌 럭셔리 신차 101번째 프리포즈

BMW·벤츠·포르쉐·토요타...
세단부터 컨버터블·경차까지
8월 현재 78개 신규모델 출시
올해 안 101개 모델 한국 상륙
내년 中 수출 1위 '체리車' 진출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출시된 수입차 업체의 신차는 모두 78개 모델에 달한다. 여기에 23개 모델은 연말까지 한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올해 수입 신차는 총 101개 모델에 이른다.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인 BMW는 지난 3월 '뉴 2시리즈 쿠페'를 국내 출시했다. 이를 통해 BMW는 국내에서 1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의 모든 라인업을 갖췄다. BMW는 4월에는 전기차 'i3'를 선보이며 수입차 업체 최초로 국내에 전기차를 내놓았다.

신차 출시로 가장 큰 재미를 본 업체는 닛산의 고급브랜드 인피니티다. 인피니티는 지난 5월 'Q50'을 출시한 뒤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하며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약진하고 있다.

차량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고급 수입차도 국내 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다. 포르쉐는 지난 3월 '카이엔 V6 플래티넘 에디션' 출시를 시작으로 5월 '마칸', 7월 '뉴 911 타르가' 등 올해에만 모두 9대의 신차를 선보였다. 이외에 람보르기니는 '우라칸 LP 610-4', 페라리는 '캘리포니아'를 7월에 출시했다. 고급차 부문에서도 한국이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입차가 신차 가뭄을 겪지 않는 것은 업체 수가 많은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자동차 제조 역사가 길게는 100년 이상 된 해외 제조사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보다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

고 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시장에서 시판 중인 승용차 모델은 모두 70여대로 현대차의 40여대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경차 '업' 등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이 많아 신차 출시 여력은 충분한 상태다.

수입차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수입차는 고급차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어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수입차 시장이 더 성숙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일반 브랜드인 폭스바겐이 판매량 측면에서 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신규 업체도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의 로컬 자동차업체 중 해외 수출 1위인 체리(奇瑞, 치루이)자동차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을 찾자마자 시장 조사를 했다. 이들은 내년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시장에 승용차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중국산 승용차는 진출해 있지만 승용차가 공식 출시된 적은 아직까지 없다.

국내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혼다는 자사의 고급브랜드인 어큐라의 국내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혼다는 7월까지 2121대를 국내에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34.1% 줄었다.

반면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는 같은 기간 10.1%, 인피니티는 218.7% 성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혼다도 부진 탈출을 위해 고급브랜드 위주로 판매 전략을 선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은 차를 고르는 데 있어 아주 까다롭다"며 "한국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수입차의 적극적인 신차 출시 이유"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CUV... 센 놈들이 몰려온다

(크로스오버차량)

수입 신차, 전기차·고성능차 등 모델 다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차량(CUV)... 수입차업체들은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신차를 선보인다. 가장 관심이 가는 모델은 10월 국내 출시 예정인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i8'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 전원에 연결해 충전하는 하이브리드차다. 전기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지만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는 기존 하이브리드차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형태다.

i8의 최고출력은 362마력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4초가 걸린다. 이 차량은 전기모터에서만 동력을 얻는 제로-에미션 모드에서 최고 120km/h

의 속도로 37km를 주행할 수 있다.

8월부터 미국 판매를 시작한 i8의 현지 출시 가격은 13만6600달러(1억4000만원)다. 국내에서도 1억 5000만원을 웃도는 고가에 출시될 전망이다. i8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크다. BMW는 i8을 올해 국내에 단 10대만 출시하는데 이 중 한 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은 CUV '캐시카이'를 올 4분기께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부산모터쇼를 통해 국내에 처음 공개된 캐시카이는 닛산이 국내에서 선보이는 첫 디젤차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캐시카이는 이미 유럽 등 전

BMW 'i8' 외부서 전원으로 충전 최고출력 362마력... 제로백 4.4초

닛산 '캐시카이' 국내 첫 디젤 모델 렉서스 고성능차 'RC F' 출격대기 푸조 '2008' 1.6ℓ 디젤로 출시할 듯

토요타 2015년형 '캠리' '프리우스V'

세계 시장에서 200만대 이상의 누적 판매를 기록하며 성공한 모델이다. 닛산은 캐시카이의 국내 출시를 통해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폭스바겐의 티구안을 따라잡을 계획이다.

렉서스는 콤팩트 SUV인 'NX300h'와 쿠페 모델인 'RC F'를 4분기 국내에 출시한다. 렉서스는 오는 10월 NX300h의 하이브리드 차종을 먼저 판매하며 내년에는 2.0ℓ 가솔린 터보엔진도 들여올 계획이다.

RC F는 렉서스가 개발한 엔진 중 가장 힘이 좋은 450마력의 5.0ℓ V8 엔진을 장착했다. 렉서스에서 만든 스포츠 쿠페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푸조의 대표 SUV 모델인 '2008'도 올해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다. 2008은 국내에서 1.6ℓ 디젤 모델이

출시될 것이 유력하다. 이 모델은 유럽 기준 연비는 26.3km/ℓ이며 가격은 1만9800유로(2700만원)이다. 푸조가 2008을 국내에서 2000만원 중반대에 출시하면 국내 완성차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의 'QM3'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는 2015년형 '캠리'와 '프리우스V'를 10~11월께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프리우스V는 5인승이나 7인승 모델이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SUV와 미니밴의 판매 열풍에 타고 토요타가 판매 부진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 지프는 '올 뉴 체로키', 미니는 '컨트리맨', 메르세데스-벤츠는 '더 뉴 GLA 클래스' 등을 4분기 국내에 선보인다. 포르쉐도 남은 기간 동안 '뉴 카이엔' 등 6대의 신차를 선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미니 컨트리맨

렉서스 NX300h

2014년 8월 이후 수입차의 신차 출시 계획

BMW	뉴 X4, 뉴 i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10월), 뉴 X6(11월말)
미니	컨트리맨(9월), 뉴 미니 5도어(미정)
지프	올 뉴 지프 체로키(8월 20일)
캐딜락	1개 모델 출시 예정
푸조	2008(9월 또는 10월)
시트로엥	C4 피카소 5인승(미정)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A 클래스
닛산	캐시카이
포르쉐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 911 GT3, 918 스파이더, 박스터·카이엔 GTS, 4기통 마칸 뉴 카이엔
렉서스	NX300h, RCF
폭스바겐	파사트 가솔린, 시로코 페이스리프트, 2015 캠리
토요타	2015 시에나, 프리우스V



BMW i8



닛산 캐시카이

푸조 2008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245호(2014.04.07 ~ 2015. 04.06)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국내 車업체 디젤로 '맞 드라이브'

그랜저 판매량 중 디젤이 56% 'SM5 디젤' 누적판매 3200대 연료비 저렴 주행성 향상 인기



위부터 그랜저 디젤, SM5 디젤, 말리부 디젤.

올해 1~7월 수입차 전체 판매의 68.2%를 디젤이 차지할 정도로 수입 디젤세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는 수입차의 성장세를 막기 위해 디젤차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디젤'은 국내 디젤 세단의 대표 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6월 말 출시된 그랜저 디젤은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3104대가 판매돼 이 기간 동안의 전체 그랜저 판매 중 56.2%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면 그랜저는 향후 가솔린보다 디젤 모델이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달 초 출시한 'SM5 디젤'도 인기를 끌고 있다. SM5 디젤은 현재 누적 판매 3200대를 돌파했다. SM5 디젤 모델의 인기로 힘입어 지난달 SM5는 국내에서 2609대가 판매돼 전달 대비 63.9% 판매량이 늘었다.

한국지엠은 중형차 부문에서 '말리부 디젤'을 출시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말리부 디젤은 지난달까지 누적판매 2000대를 넘어섰으며 현재는 2015년형의 사전계약만 받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디젤차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국산 승용차의 디젤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산 승용차 중 디젤차 판매는 12만5415대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점유율이 7.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디젤차의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젤차의 정속성, 주행성능 등의

기술력은 가솔린차만큼 높아졌다. 또 디젤 위주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디젤차 비중 확대를 이끄는 원인이다.

다만 디젤차가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수 감소와 질소산화물(NOx) 배출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자동차용 디젤은 가솔린보다 세금이 25% 적다. 지난해 자동차용으로 쓰인 가솔린은 113억1240만 원인데 이 중 10%만 경유로 옮겨가도 세수는 2700억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젤은 오존을 만들고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더 많아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판매량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부품 교체·AS 시간 비용 절약... 고객 만족 이끈다

서비스·부품센터 확충

BMW 영종도에 드라이빙센터 전시·체험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
벤츠 안성에 부품물류센터 오픈 부품 3만개...차량 수리 일사천리

“첫 번째 차는 세일즈가 팔지만 두 번째 차는 애프터 서비스(AS)가 팔린다. 고객은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느끼지 않으면 두 번째 차를 사지 않습니다.”

최근에 만난 한 수입차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달린 수입차 브랜드의 국내시장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 수입차 브랜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급성장하자 부품물류센터와 서비스센터를 확충하며 시장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차량 판매대수가 늘어나면서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BMW, 드라이빙센터로 자동차 체험 문화 확대 = 수입차업계 1위 BMW코리아는 인천 영종도에 가족단위로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 및 드라이빙 복합 문화공간 'BMW 드라이빙 센터'를 선보였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핵심 시설인 드라이빙 트랙과 자동차 문화 전시 및 체험 공간, 친환경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됐다. 전체 규모는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로, BMW 측은 연간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

BMW 드라이빙센터의 핵심 트랙은 최장 2.6km이며 다목적, 다이내믹, 원선화, 가속 및 제동, 핸들링, 오프로드 등 총 6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14명의 드라이빙 전문 트레이너가 안전한 주행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브랜드 체험 센터는 신차 전시 공간과 BMW그룹의 모든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전시 공간 '드라이빙 갤러리', BMW그룹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클래식 카들을 볼 수 있는 '헤리티지 갤러리',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라운지' 등이 들어섰다.

체험 센터 2층에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 '주니어 캠퍼스'와 체험형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 '키즈 드라이빙 스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워커히에서 제공하는 카페 '이세타 바'와 레스토랑 '테라쎬' 등 고객 편의 시설도 마련됐다.

BMW코리아는 드라이빙센터와 함께 위성 BMW 연구개발(R&D)센터 설립 계획도 발표했다. BMW 위성 R&D센터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내에 세워진다. 한국 BMW R&D센터는 2015년까지 BMW그룹 본사 관련 직원을 포함

해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서울 BMW그룹코리아 사무실과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부품물류센터로 빠른 서비스 기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최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부품물류센터를 오픈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부품물류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520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건립됐으며, 경기도 이전 시에 있던 이전 물류센터보다 약 2.5배 커진 1만7800㎡(약 5400평) 규모에 3만1000여종의 예비 부품을 갖췄다.

신규 부품물류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필요한 부품을 수급하기 위해 독일에서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비싼 운송료와 더불어 8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3만개 이상의 부품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1일 배송 시스템이 가능해졌다. 고객이 부품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도록 야간 배송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1일 2회 배송이 가능해 입고된 차량의 수리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부품물류센터에는 '턱&토우 콘셉트(Tug&Tow concept)' 트럭도 새롭게 도입했다. 한 대의 트럭으로 여러 대의 부품 수레를 움직일 수 있는 턱&토우는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부품을 입·출고시킬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파트부문 총괄 조규상 부사장은 "최신식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한 신규 부품물류센터의 공식 오픈에 따른 서비스 소요시간 단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승용차뿐 아니라 상용차도 빠른 부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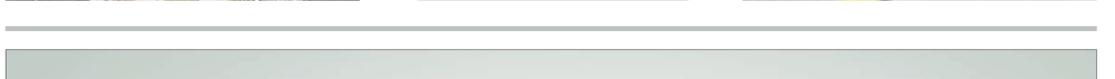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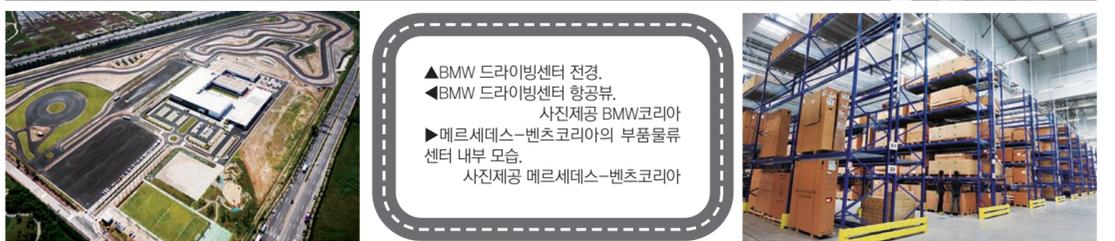
◇서비스센터 늘려 운전자 잡아라=수입차 브랜드들은 앞다퉀 서비스센터를 늘리고 있다. BMW는 서비스센터를 현재 41곳에서 올 연말까지 6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폭스바겐도 연말까지 33곳으로, 아우디는 28곳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수입차 브랜드도 AS센터를 확충한다. 올해 포르쉐의 17번째 글로벌 자회사로 출범한 포르쉐코리아도 서비스센터를 8곳으로 확장한다.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출시하며 올해 공격적인 국내 시장 공략을 선언한 닛산도 서비스센터를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입차 브랜드가 AS센터 확충에 집중하는 이유는 만성적 서비스센터 부족으로 국내 운전자의 불만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수입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서비스센터 불만이 수입차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회사의 우려도 커졌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판매량이 계속 늘고 시장 크기도 커졌지만 서비스센터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수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고객 불만이 이어졌다"며 "이제는 서비스가 수입차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센터 확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BMW 드라이빙센터 전경.
 ▲BMW 드라이빙센터 항공뷰.
 사진제공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부품물류센터 내부 모습.
 사진제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부품값 거품 빠지나

이달부터 홈페이지 가격 공개
대체부품 인증제도 내년 시행

8월부터 시작된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와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수입차 부품 가격 논란이 잦아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부품값으로 논란이 됐던 수입차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고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는 민간 인증을 거친 부품이 순정품과의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리비 인하와 중소기업 생산업체의 자체 브랜드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두 제도가 자동차 부품 가격

인하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으로 안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자동차 부품 공개는 시행 결과 홈페이지에 가격을 제대로 노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값을 알고 싶어도 메뉴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부품명을 영어로 입력하게 돼 있어 영문명을 모르면 검색할 수 없다.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 역시 시행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수리를 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때 디자인 특허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체들이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설정, 부품교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대체부품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수입차 부품 가격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인증제가 활성화된다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모든 부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엔진과 변속기 부품인데, 그 부분까지 파급 효과가 미처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iran@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콕!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추천종목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장타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돌돌	매매타이밍 고민 NO!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을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통예금보다 위험이 높으며,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담보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위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택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987호(2014.06.20~2015.06.19)

뛰어난 성능·수려한 디자인... 눈길 끄는 수입차 대표주자

6기통 같은 '괴물 4기통'... 최고 안전시스템까지

볼보 S60

볼보자동차의 다이내믹 스포츠 세단 S60은 스타일리시한 쿼터백 디자인에 다이나믹한 주행성능, 최고의 안전 시스템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다.

'드라이브-이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S60 D4는 기존의 첨단 안전 시스템은 기본,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성능과 우수한 연료 효율성을 갖췄다. 새롭게 탑재된 드라이브-이 엔진은 컴팩트한 크기의 4기통 엔진이지만 유입되는 유체(공기)의 양을 극대화시켜 5기통 혹은 6기통 엔진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S60 D4는 동급 최고 수준의 토크(40.8kg·m)는 유지하면서도 최대 출력을 기존 163마력에서 181마력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디젤 엔진에는 볼보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능형 연료분사 기술인 'i-ART'가 적용됐다.

더불어 S60 D4는 8단 기어트론닉 변속기를 채택했다. 신형 변속기는 최적의 변속



을 통해 부드럽고 편안한 드라이브를 가능하게 하고, 연료 효율성도 대폭 향상시켰다. 복합연비는 17.1km/ℓ(고속도로 연비 20.4km/ℓ)의 1등급 연료 효율로 기존 모델 대비 22% 향상됐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3g/km으로 20% 감소했다.

S60 D4는 차체 강성이 최고 50%까지 향상된 다이내믹 새시를 기본 적용했으며 '코너 트랙션 컨트롤(CTC)'을 기본으로 장착해 코너링의 민첩함을 높였다. '기어 시프

트 패들'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기어 변속이 가능하다.

안전시스템도 S60 D4의 강점이다. 새롭게 선보인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II'는 상향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을 방지한다. 한층 강화된 레이더 기반의 '레이더 사각지대 정보시스템(BLIS)'과 '후-측면 접근 차량 경고시스템(CTA)'도 적용됐다. 장효진 기자 js62@

'베스트셀러' ES시리즈 첫 하이브리드 모델

토요타 ES 300h

ES시리즈는 25년 전 토요타가 렉서스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함께 공개된 라인업이다.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만대 이상이 판매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3만 3000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ES 300h'는 ES 라인업 최초로 도입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2.5ℓ 4기통 앳킨슨 사이클 엔진과 새로워진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했다. 도심 16.1km/ℓ, 고속도로 16.7km/ℓ, 복합 16.4km/ℓ의 공인연비를 기록, 동급 최고의 경이적인 연비성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103g/km의 친환경성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행 환경에서도 속도감과 안정감을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설정하면 놀라운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 직선인 아닌 구불구불 굽어



지는 길에서도 차체제어장치(VDC), 구동력 제어장치 등이 작용하면서 안정감을 제공한다.

ES 300h가 포함된 6세대 렉서스 ES는 효율적인 패키징으로 제작됐다. 전륜구동 차량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휠베이스를 45mm 늘렸다. 또한 대형 승용차에 필적하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프론트와 리어 오버행을 각각 5mm 늘려, 전체 길이가 25mm밖에 늘어나지 않은 균형 잡

힌 '스마트 사이징'을 실현했다. 아울러 ES 300h가 속한 ES 시리즈는 도어프레임 커버와 리어레프트의 측면에는 주행 시 차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에어로스타빌라이징 핀을 탑재했다. 언더커버에도 공기역학 개선 장치를 탑재, 차량하부의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 스포츠카 수준의 공기 저항 계수를 실현했다. 국내 출시되는 ES 300h 모델은 표준형, 고급형으로 구성됐다. 서지희 기자 jhsseo@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탑재... 4륜구동 시스템

BMW i8

BMW그룹은 BMW의 서브 브랜드 'BMW i'의 두 번째 모델 'i8'을 다음달 출시한다.

BMW i8은 BMW i란의 특별한 설계 개념인 '라이프 모듈'과 '드라이브 모듈'로 구성됐다. 탑승 공간을 구성하는 라이프 모듈은 신소재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으로 제작됐다. 또한, 파워 트레인 과 고전압 배터리, 새시 등이 통합된 드라이브 모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고가의 알루미늄 재질 적용으로 차 중량은 1485kg으로 가벼워졌다. 460mm의 지상고와 0.26Cd의 공기저항계수는 낮은 무게중심을 실현한다.

BMW i8에는 BMW 이퍼선택다이내믹스의 최신 기술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3기통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231마력, 최대토크 32.6kg·m의 힘을 발



휘한다. 구동력은 6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뒤 차축으로 전달된다. i8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는 최고출력 131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낸다. 이는 2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앞 차축으로 전해진다.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과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 'BMW eDrive' 기술의 결합을 통해 BMW i8은 최고출력 362마력의 힘을 보여준다. 또한, 정지 상태

에서 100km/h까지 단 4.4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시속 250km의 최고 속도를 발휘한다. 여기에 EU 기준 47.6km/ℓ의 연비, 49g/km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랑한다.

또한 BMW i8의 4개 휠은 동시에 구동된다. i8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강력한 접지력을 자랑한다. 프론트 휠 드라이브, 리어 휠 드라이브, 4륜 드라이브의 장점들을 결합해 필요에 따라 최적의 동력 성능을 제공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무게 줄이고 실내공간 넓히고... 세련미 더해

뉴 푸조 308

뉴 푸조 308은 이전 세대 모델과 비교해 플랫폼부터 디자인까지 완전히 새롭다.

EMP2(Efficient Modular Platform 2)를 통해 경량화를 실현했고, 차량의 길이를 줄인 동시에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에 비해 넓었다. 한층 다이내믹하면서도 우아해진 외관은 차량에 세련된 이미지를 더하고, 여기에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는 '2.0 블루 HDi' 엔진을 탑재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선사한다. 2.0 블루 HDi 엔진은 최대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7.8kg·m의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뉴 푸조 308은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움직이면 0.4초 내에 재시동을 걸어주는 '스톱 앤 스타트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 시내 주행 시 약 15%의 연비 향상 효과와 평균 5g/km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뉴 푸조 308의 연비는 14.6km/ℓ(고속도로



16.4km/ℓ, 도심 13.4km/ℓ)이다.

뉴 푸조 308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PSA그룹의 새로운 EMP2 적용으로 가능해진 경량화와 차량 구조의 혁신에 있다. 뉴 푸조 308은 기존 모델 대비 최대 140kg까지 무게가 감소해 더욱 가볍고 민첩한 움직임을 보인다. 여기에 전장은 이전 세대에 비해 20mm 짧아지고 전고는 30mm 낮아져 차량의 크기는 콤팩트해졌지만, 전폭과 휠베이스를 10mm만큼 넓혀 효율적인 실

내 공간을 확보했다. 앞뒤 오버행은 각각 865mm 및 770mm로 시각적으로 더욱 안정된 느낌도 선사한다.

이 밖에 뉴 푸조 308은 레이더를 이용해 앞 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계산,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탑재했으며 전자식 핸드브레이크, 대형 컬러 스크린을 이용한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 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장효진 기자 js62@

왜? Vitamin C
우리 몸에 꼭 필요할까요?

- 1 비타민C는 사람의 몸에서는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 2 인체 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 3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멀티플레이어 Vitamin C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육체 피로
- 피로 회복
- 피부 건강
- 잇몸출혈·비출혈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료 무료) | [문자광고] 발송 주 있으나 일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읽으십시오. [의약품] 상의약품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활화 하십시오.

신용의 상징 - 버블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의뢰: 1256-1400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순수 고품질 비타민C
유한비타민씨 정 1000mg

NEW
유한 순수 고품질 비타민C
비타민씨 정 1000mg
600정 (100일 사용)

- 1정에 비타민C 1000mg을 함유한 순수 고품질 비타민C
- 의약품으로 엄격한 제조과정과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
- 명확한 효능·효과를 갖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
- 방습효과 뛰어난 PTP 포장으로 비타민C 산화 현상 방지

600정
●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 메가비타민C 용법에 좋습니다. ● 온가족이 함께 복용하실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수백개의 색이 만난

단 하나의 명품구두

신데렐라의 구두가
두 겹이었더라면
신데렐라 스토리는
탄생하지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26) 레페토 Repetto PARIS

플랫 슈즈로 유명한 '레페토(Repetto)'의 역사는 발레로부터 시작됐다. 1947년 로즈 레페토가 프랑스 오페라 극장 무용수들을 위한 발레 슈즈를 제작하면서 레페토 브랜드는 탄생했다.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1956년. 당시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는 로즈 레페토에게 밖에서도 신을 수 있는 발레 슈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신발을 신고 열연한 영화가 바로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1956)'였다. 이 영화는 영화사에 남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그녀의 발레 슈즈도 불후의 명성을 얻게 됐다. 무대에서 거리로 내려온 발레 슈즈 레페토는 이제 플랫 슈즈의 대명사가 됐다.

레페토 연혁

- 1947** 로즈 레페토, 아들 롤랑프리의 조언으로 오페라 가리니에 무용수들을 위한 발레슈즈 '레페토' 제작
- 1956** 레페토를 신은 프랑스 유명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의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 영화 히트, 플랫 슈즈의 대명사로 명성 얻음
- 1959** 파리의 22 Rue de la Paix 에 첫 부티크 오픈
- 1967** 공장을 설립해 회사를 확대함
- 2007** 60주년을 기념해 'Danse pour la vie' 재단 설립
- 2010** 나만의 발레리나 슈즈를 만들 수 있는 맞춤 제작 서비스 '아틀리에 레페토' 시작
- 2012** 슈즈 안쪽 바닥을 박음질한 후 바깥 쪽으로 뒤집는 스티치 앤 리턴(stitch and return) 기술 적용 시작

산드리옹(Cendrillon)

마담 로즈 레페토는 '가볍고 편안하지만 더욱 섹시하게 보이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댄스화'를 디자인했고, 배우 브리짓 바르도는 이 신발을 신고 1956년 영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에 출연했다. 레페토 특유의 스티치 앤 리턴(Stitch and Return) 제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신데렐라 발레리나 슈즈는 브리짓 바르도의 애칭을 따 'BB'로 이름지어졌지만, 동물보호운동가로 변신한 바르도가 2012년 가족을 사용하는 제품에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신데렐라를 뜻하는 '산드리옹'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지(Zizi)

마담 로즈 레페토가 그녀의 아들 롤랑프리의 아내인 지지 장메르를 위해 만든 부드럽고 가벼운 레이스업 슈즈다. 장메르는 '카르멘' 주인공이자 안무를 맡은 무용수로도 유명하다. '프렌치 시크' 패션을 선보이는 세르주 갱스부르는 화이트 지지를 광적으로 좋아해 매년 30여 컬렉션을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는 발레슈즈처럼 스티치 앤 리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시즌마다 다양한 색상과 소재로 출시된다.

마이클(Michael)

가수 마이클 잭슨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2009년 탄생한 로퍼 슈즈, 캐주얼이나 세미정장에도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으며 가벼운 착용감으로 걸을 때 더욱 편안한 장점이 있다. 끈이 없는 로퍼 스타일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 남녀 모두에게 인기있는 슈즈다.

◇오페라 가리니에 무용수들을 위한 발레화 = 레페토는 베자르, 누레이에프, 캐롤린 칼슨, 폴리 베르제르 등 세계적인 무용수들이 즐겨 신었다. 이후 레페토라는 이름은 품격, 품질, 우아함을 대표하는 무용화 및 무용을 상징하게 됐다.

발레리나의 우아한 자태가 떠오르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레페토는 발레리나 슈즈를 모티브로 프랑스 파리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으로 감각 있는 패셔니스타들에게 주목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레페토 슈즈는 기본 스타일을 바탕으로 매년 시즌별 새로운 소재와 색상을 선보인다. 여기에 레페토 슈즈만의 특징인 박음질 후 뒤집는 기술, 접착 기술, 외부 박음질 기술 등 세 가지 기술이 조화를 이뤄 발이 원하는 유연성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함 없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레페토의 철학과 트렌드는 슈즈 이상의 작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신발을 = 레페토의 가장 큰 차별점은 주문제작 시스템인 '아틀리에 레페토'다. 앞서 언급한 브리짓 바르도의 주문 역시 아틀리에 레페토를 통해 이뤄졌다. 레페토의 첫 매장인 프랑스 루 드 라페(Rue de La Paix)를 시작으로 칸(Cannes), 툴루즈

1947년 프랑스 극장 무용수를 위해 첫 발레슈즈 제작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 통해 유명세 '플랫슈즈 대명사'로 가죽·트리밍·리본·힐 색상 조화로 독창적 수제화 연출 기존 산드리옹 라인 외 마이클·지지도 한국서 제작 가능

(Toulouse) 부티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한국에는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아틀리에 레페토는 슈즈의 세세한 부분까지 본인이 원하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마법의 공간이다. 신발의 크기 또한 35(225mm)부터 42(265mm)까지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발이 너무 작거나 커서 고민했던 이들에게 인기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받은 슈즈는 레페토만의 특별 기술로 제작돼 다른 슈즈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제작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일반 패션 슈즈와 달리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을 위한 장인의 작품이어서 소장 가치도 충분하다.

아틀리에 내에는 언뜻 미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크리에이션 테이블(Creation Table)이 놓여 있다. 테이블 컬러보드에는 마치 실제 작업장처럼 슈즈의 본체를 구성하는 가죽뿐 아니라 슈즈 테두리, 레이스 등 세세한 부분을 장식하는 다양한 색상이 각각 다른 판에 놓여 있다.

가죽 색상은 총 250여 가지, 슈즈 테두리의 트리밍 색상과 리본 끈을 구성하는 레이스 색상만 해도 120~130가지에 달한다. 또한 힐 색상도 3가지(베이지·브라운·블랙)로 갖춰져 있어 수만 가지의 독창적인 발레리나 슈즈의 연출이 가능하다. 또한, 오른쪽 힐 부분에는 아틀리에를 상징하는 레페토의 'r'를 표시, 맞춤 슈즈의 특별함과 희소성을 배가시킨다.

◇더 다양한 국내 맞춤 서비스 = 아틀리에를 통한 맞춤 슈즈는 레페토 라인 중 '산드리옹' 라인만 주문할 수 있었지만, 올해 F/W시즌

(가을·겨울)부터 더욱 다양한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산드리옹 외에도 '마이클', '지지'와 '까뮤'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마이클과 지지는 남녀 스타일 모두 제작 가능하다. 소재는 양가죽과 패이먼트 가죽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화이트 인솔에 자신만의 텍스트를 넣을 수 있다. 텍스트 색상도 그레이, 블랙, 핑크 등 고를 수 있다.

사랑하는 이의 이니셜이나 돌만이 아는 의미 깊은 텍스트를 새긴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 될 수 있다. 벨, 리본 등의 참도 달 수 있어 취향대로 디자인하면 된다. 가격대는 스타일과 소재 등에 따라 49만8000원부터 67만8000원까지다.

레페토 측은 "길 가다가 나와 같은 슈즈를 신은 사람과 마주쳐 기분을 상해 본 적 있는 이들 이라면, 하루빨리 아틀리에 레페토를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며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슈즈를 갖고 싶어하는 이들의 소망을 200%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레페토의 슈즈 맞춤 제작 서비스는 프랑스 현지 매장과 엄선된 최고급 해외 매장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레페토 청담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선에 기자 isa@

www.mediatong.com

포트폴리오인재관

이제 스킬과 이력서, 포트폴리오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기업PR관

미디어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송가맛집

우리회사, 내가 꿈꾸는 직장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교육기관 인재정보

우리 교육기관의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정부 규제에 脫코리아 현상까지... 흔들리는 '게임강국'

'진퇴양난' 게임산업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게임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매김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세계 게임시장 규모가 2017년까지 870억 달러(약 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차세대 미래 콘텐츠 산업인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 게임업체들은 오히려 위기에 놓여 있다. 한때 승승장구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히고 외산 게임에 치이면서 취침거리고 있다. 중국 시장 진출로 탈출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중국 자본에 점차 잠식되고, 국내에 남아있던 업체들도 미국 게임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정부에 발목 잡히고, 외산 게임에 치이고 =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달리 창조경제의 대표 주자인 게임산업은 졸속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음한다. 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임 강국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K팝을 필두로 한 한류 음악 수출액보다 11배나 많은 연간 28억달러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임산업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가 도를 넘었다. 규제를 넘어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치권과 정부가 게임산업을 마약류, 도박, 알코올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제하려는 '게임 중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게임산업에 대한 발목잡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학부모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게임업체 매출의 1%를 게임중독 치유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메이저 게임 개발사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고, 대작 개발과 퍼블리싱을 아예 해외시장부터 시작하는 게임 산업계의 '탈 코리아' 현상이 벌어진다.

국내 시장규모 10조 육박... 수출액, K팝보다 11배 많아 게임시간선택제·셧다운제 이어 국회 '중독법' 제정 추진 '미래 콘텐츠 육성' 지원책 쏟아내는 美·中·유럽과 대조적

발의 중인 게임 규제 법안

관련부처	법안(발의일자)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년 1월 8일 손인촌 의원 대표 발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치유센터를 설립 -재원은 게임 사업자에게 연매출액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징수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2013년 4월 30일 신의현 의원 대표 발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치유센터를 설립 -4대 중독 물질(마약, 도박, 술, 게임)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개정시 위원회와 협의의 강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3년 6월 3일 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 지원을 위한 상생콘텐츠기금 설치 -콘텐츠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의 범위에서 징수

국내 콘텐츠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부 이후 창조경제를 이끌 '5대 글로벌 키워드 콘텐츠' 중 하나로 꼽혔지만, 국회에선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인 모양새다.

국내 게임업체 한 임원은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국내와는 반대로 수백개씩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2-3년 내에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 시장 역시 중국 업체들에게 모두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 게임시장, 추락하는 시장과 성장률 =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9조7525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10.8% 늘었다. 2005년 8조원대에 이르렀던 국내 게임 시장은 2006년과 2007년 대폭락 이후 5조원으로 줄었다가 2008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이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를 키웠으나 2012년부터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각종 규제에 위기는 목소리가 높지 않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3.4%, 2010년 29.4%, 2011년 48.1%로 급증하다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인 2012년에는 11%로 급락했다. 게임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탓이다.

특히 한법제관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게임업계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현재의 합헌 결정으로 게임산업이 계속해서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 부정적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게임업체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 게임산업은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절을 버텼다. '4대 중독법'을 비롯해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았고, 인기 게임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변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업체들이 큰 폭의 수익 하락을 겪었다.

또 이 같은 규제와 시장 침체는 연간 게임물 제작 건수의 하락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은 2013년에 비해 34.4% 하락했으며 특히 PC 온라인은 43.1% 급감을 나타냈다. 또 2014년 2분기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판은 다면, 결국 본사 이전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119@

시행 중인 게임 규제 법안

- 2014년 2월 24일 웹보드게임 규제
- 2012년 1월 22일 선택적 셧다운제
- 2011년 11월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건전 게임문화 조성" 인식개선 노력 활발

세계 최초의 그래픽 온라인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넥슨의 '바람의 나라', 누적 매출 2조원을 돌파한 16년차 장수 게임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동시 접속자 420만명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온라인 게임 중추국으로 각종 기록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평정했던 국내 게임 산업이 위태롭다.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고스란히 내준 것은 물론, 쇠락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게임업체들의 가능성을 본 해외의 러브콜은 이어지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중독물'의 잣대로 바라보며 서자 취급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 업체들은 한국 게임 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에 국내 게임업계가 통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중국 텐센트가 CJ넷마블의 주식 28%를 확보하며 533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텐센트는 이미 넷마블, 카카오톡 등 국내 주

"기회 되면 해외이전 의향" 80%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 지났지만 당장 '단맛'보다 "국내산업 한 축" 어린이병원 건립·기아퇴치 게임... 사회공헌 활동 적극적으로 나서

요 모바일 회사에 투자한 상태이며, 중국 3대 모바일 게임사로 불리는 공중망, 라인콩도 올해 초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규제로 침체된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자칫 국내 게임 시장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국내 개발사들의 해외 이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업체의 80.5%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국내 게임업계가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단맛'을 맛볼 수 있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기보다는, 국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전한 게임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서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넥슨은 최근 푸르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이미 70억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내놓았고, 병원 완공을 위해 재원의 절반인 200억원을 납입기로 약속했다. 엔씨소프트는 2012년 재단을 설립하고 가아비 치용 공의 게임 '프리라이프-모바일'을 출시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특히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 다이노스를 창단하고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은 물론 꿈과 희망을 주는 모토로 구단을 운영,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ns00@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호갱님’ 바가지 씌우기 사라진다

10월 시행 ‘단통법’ 세부고시 확정

통신사 지원금·제조사 장려금 분리 공시
보조금, 어디서 얼마나 주는지 투명 공개

25만~35만원 내 상한선 6개월마다 조정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지원받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표준화를 기본으로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 요금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통법은 이른바 ‘호갱님’으로 간주되며 턱 없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고객에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본다.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각각 얼마나 되나 = 우선 소비자들은 10월부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 지원 출처와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시행될 단통법 고시안에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고시안에 보조금 분리공시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제조사와 이통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자 최종 결정일을 미루 왔다. 특히 제조사는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기밀 유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제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합산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돼 소비자는 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보조금이 어디로부터, 얼마가 지급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선물 받은 휴대폰도 요금할인 가능해 = 분리공시 시행으로 고객들은 한 가지 혜택을 더 받게 된다. 분리공시제가 실시되면서 분리요금제도 탄력을 받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분리요금제는 기존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옛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통사에서 주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전체 보조금 중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을 제외하고 이통사 지원금을 요금할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알면, 할인 요금 요율을 설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에 기반한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

단통법 시행 후 혜택들

변경사항	내용	혜택
분리공시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 장려금 구분 공시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출처와 금액 한눈에 파악
요금분리제	이통사 외 다양한 채널 통해 유통된 단말기도 요금할인 혜택 제공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예외없는 요금할인
보조금 상한제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유연하게 운용	저가 요금 가입자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최저 요금제인 2만원 가입자는 최대 6만원까지 지원)

폭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현재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거나, 값싼 단말기를 구매하려면 오히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예외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데다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고가의 새 단말기를 살 이유가 없게 됐다.

단 분리요금제를 통해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24개월 이내에 휴대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최저 요금제도 보조금 지원받아 =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저가 요금 가입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12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최대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최저 요금제인 2만원 가입자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유통점 직원이 △3개월간 69요금제 이상 사용 등의 ‘고가 요금제 유지’ △컬러링 등 3개월간 부가 서비스 이용 등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소비자는 ‘갈팡질팡’ “10월까지 기다리세요”

회사원 김모씨(29)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종로의 한 이통사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보조금 대란 때처럼 많은 보조금을 원했으나 판매직원은 손사래를 쳤다. 정부에서 최근 감사가 심해 보조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방법을 알아보던 직원은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전에 보조금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며 “연락처를 남겨주면 보조금 풀릴 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연락처를 남기고 왔지만, 단통법이 휴대폰 보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후로 보조금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올 초 역대 최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단통법 시행을 앞둔 이통사들이 분위기 파악에 나서면서 현장에선 보조금의 씨가 말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00만원을 호가하던 보조금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한선인 27만원 보다 낮게 지급되고 있다.

지난 주말 찾은 서울시내 대리점에선 최신 단말기의 보조금이 27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출고가가 94만5000원인 삼성

방통위 조사 강화에 불법보조금 ‘꽂꽂’

단통법 시행하면 최대 40만원 보조금

갤럭시S5 광대역 LTE-A는 23만원 내린 71만5000원에, 출고가가 89만 9800원인 LG G3는 26만원 내린 63만9800원에 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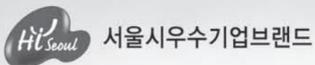
보조금이 많이 풀리지 않자 소비자들이 험사리 변호이동통신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변호이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변호이동통신수는 64만4468건에 그쳤다. 전달 대비 23.9%나 감소했다.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보조금 빙하기지만 일각에선 단통법 시행 직전 법정 기준보다 많은 불법보조금이 풀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 최근 일선 이통사 대리점에선 추석 전후로 불법보조금이 풀릴 것 같으며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요구, 대가자 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이통사 대리점 직원은 “이통사들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법정 기준보다 많은 보조금을 풀 가능성이 높다”며 “단통법 시행 전 가입자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일부의 이 같은 예상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이 풀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시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이통사들도 올 상반기 단통법 영업정지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중국 저가 스마트폰으로 알려진 사오미폰이 국내에 상륙했고, 화웨이도 국내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 출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아예 단통법이 시행되기까지 기다리라고 권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최대 보조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고, 보조금분리공시제 시행으로 보조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정당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따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고 귀띔했다.

김법근 기자 nova@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서연’ ‘리훴쿠첸’ 밸류에이션 재평가 희비교차

(지주사 전환 기대) <실적 과대평가>

베스트&워스트 8월 11~14일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4거래일 내내 상승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의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에 힘입어 오른 것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둘째(8월 11~14일)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2.12포인트(1.58%) 오른 2063.22로 마감했다. 외국인인 6902억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716억원, 3839억원 순매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구가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13.94포인트(2.56%) 오른 558.18로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3억원, 154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서연, 58.99% 상승... 지주사 전환이 호재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서연으로 한 주 동안 58.99%나 치솟았다. 서연은 한일이화가 자동차도어 및 시트사업을 담당하는 한일이화와 지주사 격인 서연으로 인적분할했다. 그 결과 지난주 주가는 1만 4300원에서 1만7250원으로 뛰었다. 통상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 호재로 작용한다. 대상장 과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고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비상장 계열사의 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연의 경우 지주사 전환을 기점으로 사업회사 자본을 추가 획득에 따른 NAV(순자산가치) 상승과 지주회사 전환 이후 높은 배당 가능성으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주가 상승에 가속이 붙었다. 이 밖에 동부제철은 18.93% 올랐다. 이어 이화산업 18.75%, 동원시스템즈 17.15%, 한화켄러리아타입월드 16.43%, 아모레G 15.14% 등이 주가 상승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스타코, 21.79% 하락... 보호예수·밸류에이션 등이 주가 하락 주요 원인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는 이스타코가 21.79% 하락하며 주가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사이 테마주로 묶인 이스타코는 특별한 악재가 없었지만 주가 하락률 1위에 올랐다. 범양건영은 21.02% 하락해 뒤를 이었다. 주가는 2만원에서 1만7100원으로 내려갔다. 범양건영은 제3차 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험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지난 13일 만료됐다. 이를 앞두고 기관

사이 테마주 ‘이스타코’ 별다른 이유없이 21% 뚝 ‘범양건영’ 보호예수 만료... 기관 “팔자” 하락 2위 ‘사조해표’ 지난달 발생한 구제역 반사익에 28%↑

사조해표는 28.07% 올라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1만4600원에서 1만8250원으로 올랐다.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에 띈다. 지난주 기관들은 사조해표 주식을 10억원어치가 넘게 사들였다. 사조해표는 지난 7월 23일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수산주가 반사이익을 받으며 주가가 올랐고, 경남 합천 군수가 중점 방제기간을 지난 8월 12일부터 오는 31일 까지 정하자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삼양사가 26.75% 오르며 상승률 3위에 올랐다. 삼양사 역시 서연과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개편 소식이 주가가 뛰었다. 삼양사는 지난 12일 밀가루 생산회사인 삼양밀맥스를 흡수합병하고 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재활용 사업 부문을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밀가루 생산과 판매, 전락기혁 등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2분기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고 밝히

매도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들이 이 기간 동안 저가매수에 나서지만 4억원이 넘는 기관의 매도세를 당하지 못했다. 와이비로드와 쿠쿠전자도 하락했다. 와이비로드는 15.21% 떨어지며 하락률 3위를, 쿠쿠전자는 14.5% 미끄러지며 하락률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쿠쿠전자는 지난 6월 11일 상장 후 연이어 주가가 상승했지만 지난주부터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주가는 22만2000원에서 20만3500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밸류에이션(이익 대비 주가)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 과정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12개월 이의전망치 기준 전자제품 중목의 PER(주가수익비율)가 10배 이하지만 쿠쿠전자는 26배에 달한다. 지난주에 외국인인 15억7000만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이와 함께 근화제약 -13.07%, 유니온스틸 -12.16%, 동부증권 -11.76%, 에경유화 -10.50%, 디올에디바이오 -10.18% 등이 동반 하락했다. 황윤주 기자 hyj@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4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서연	214	10,850	58.99
사조해표	131	14,250	28.07
삼양사	370	58,700	26.75
동부제철	135	1,875	18.93
이화산업	56	16,800	18.75
동원시스템즈	337	11,950	17.15
한화타입월드	340	48,700	16.43
아모레G	8,498	925,000	15.14
삼성제약	72	2,875	15.13
삼한기유	30	5,830	14.92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4일 시가총액	감소(원)	감소(%)
선정산업	107	10,050	-10.15
디올에디바이오	31	1,375	-10.18
에경유화	194	67,600	-10.50
동부증권	209	5,570	-11.76
유니온스틸	116	12,750	-12.16
근화제약	85	19,900	-13.07
쿠쿠전자	1,995	238,000	-14.50
와이비로드	26	2,170	-15.21
범양건영	45	21,650	-21.02
이스타코	141	4,200	-21.79

※자료: 에프엔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4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드래곤플라이	137	6,760	44.38
전파기지역	69	10,200	27.94
대한뉴팜	256	14,050	26.69
디지틀조선	143	3,040	26.64
한국사이버결제	144	8,700	25.86
파인디앤씨	28	1,300	22.69
마이테크	81	8,010	22.10
와이저인터	695	37,900	22.03
산양	31	1,285	21.40
에스타이아	82	5,650	20.18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4일 시가총액	감소(원)	감소(%)
위트	63	1,850	-14.32
알티캐스트	195	10,800	-14.81
ITX시큐리티	35	3,240	-17.59
웰메이드	27	3,070	-18.40
KCI	101	11,450	-20.09
엔텔스	92	16,850	-20.47
원하이텍	65	12,550	-21.20
인터팩트	50	3,420	-21.78
리훴쿠첸	443	16,300	-22.39
현대아이비티	60	2,710	-24.91

※자료: 에프엔가이드

◇드래곤플라이, 44.38% 급등... 중국 시장 돌풍이 주가 견인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게임주인 드래곤플라이다. 지난주에만 44.38% 올랐다. 주가는 8930원에서 9760원으로 치솟았다. 결국 지난 14일 증가가 보름 전 증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았다. 드래곤플라이가 급등한 것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때문이다. 지난달 말 33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전파기지역은 27.94% 올라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주가 역시 1만900원에서 1만

이 33m로 확대된 것이다. <현대아이비티, 28% 하락...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률 1위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는 현대아이비티가 24.91% 하락하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2주 연속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현대아이비티에 대해 최근 현저한 주가급락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일 현대아이비티는 “주가급락과 관련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이번주에도 미끄러졌다. 리훴쿠첸은 22.39% 떨어져 2위에 올랐다. 주가는 1만5100원에서 1만2650원으로 내려갔다. 리훴쿠첸은 코스피 시장의 쿠쿠전자와 함께 주가 밸류에이션이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에 주가 조정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밥솥이 중국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지만 리훴쿠첸의 경우

신게임 출시 ‘드래곤플라이’ 중시장 흥행가속 44%↑ ‘전파기지역’ 횡령혐의에도 영업익 폭증 상승 2위 2주연속 미끄럼 ‘현대아이비티’...“급락 사유 없다”

3050원으로 뛰었다. 전파기지역은 악재보다 호재가 더 크게 작용했다. 회사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장병권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혀 악재가 닦였다. 하지만 이를 뒤(14일) 2분기 영업이익이 91억14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3% 증가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대한뉴팜은 26.69% 오르며 상승률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주가는 1만6650원에서 1만7800원으로 올랐다. 대한뉴팜의 경우 투자 대상인 카자흐스탄 광구의 원유 매장 구간이 확대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대한뉴팜은 지난 11일 자사에서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구 운영사인 록시(Roxi Petroleum)가 “BNG 광구 A5유정 2차 코어샘플 암석 공극에 오일이 차 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에는 4332-4344m 구간에서 채취된 1차 코어샘플에 오일이 차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2차 코어샘플이 4347-4365m 구간에서 채취됨으로써 총 원유매장 구간

그 수혜를 입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회사측의 분석이다. 리훴쿠첸은 중국에서 이태크 영업량을 확보하고 판매를 시작해 중국 전기밥솥 시장 공략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올 상반기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빠졌다. 리훴쿠첸은 지난 14일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94% 감소한 100억8021만원을 기록했다.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 증가한 1893억1364만원, 당기순이익은 15.75% 감소한 85억7001만원을 기록했다. 인터팩트와 원하이텍도 주가 하락률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인터팩트는 21.78% 빠졌고 원하이텍은 21.20% 떨어졌다. 인터팩트는 지난주 방한한 고희공의 광화문 시복식 행사를 스피커 등 음향설비와 인력을 지원한다고 알려졌음에도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엔텔스 -20.47%, KCI -20.09%, 웰메이드 -18.40% 등도 동반하락했다. 황윤주 기자 hyj@

"불확실할수록 크게 보라" 커피 값과 인센티브는 파악할 수 없는 진짜 경제학의 세계

전 세계 밀리언셀러 《경제학콘서트》의 저자 런던정경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친절함 경제 선생님 팀 하포드의 일대일 맞춤 수업

당신이 경제학자라면

고장 난 세상에 필요한 15가지 질문

불확실한 세상? 대책 없이 고장 난 경제? 거시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보라

《경제학 콘서트》로 일상경제학의 새 지평을 열며 전 세계인의 경제 IQ를 높여준 팀 하포드가 이번에는 우리에게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이 되어보라고 말한다. 이제 경제를 운용하는 자리에 선 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다. 가장 독자와 경제학자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나 마이클 샌델의 강의처럼 유쾌하고 명쾌한 질문과 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마치 일대일 맞춤 경제 수업을 듣고 있는 듯, 경제학자는 현대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신의 사례, 경제학의 주요 이론과 개념들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문의: 02-3670-1544

넘치는 정보 속에서 움직이는 과녁을 맞는 예측의 비법

빅 데이터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다. 진짜 '신호'에 귀를 열어라!

미래는 어떻게 당신 손에 잡히는가

신호와 소음

대통령 선거, 월드컵 우승, 주식의 등락... 미래 예측의 패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통찰!

《신호와 소음》은 왜 수많은 예측들은 실패하지만 어떤 예측은 맞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네이트 실버는 우선 2008년 금융 위기 예측 실패와 정치 전문가의 선거 결과 오판 등 다양한 예를 들어 왜 예측들이 실패했는지 분석한다. 또한 일기예보, 스포츠, 도박, 체스, 지진, 전염병, 테러 등 여러 분야를 살펴봄, 매일 엄청난 데이터가 생성되는 '빅 데이터' 시대에 왜 많은 예측들이 그렇게 심하게 빗나가는지 묻고 '베이지 정리'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한다. 정보가 많다고 예측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정보인 '신호'와 이를 방해하는 '소음'을 잘 분리해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 및 미국, 유럽의 경제 상황에 따라 늘 요동치는 환경에서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필독서"라는 미래학자 최윤식의 추천사처럼, 네이트 실버의 통찰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이트 실버 저 | 이경식 옮김 | 더퀘스트
값 28,000원

오바마 재선 당시, 50개 주의 결과를 모두 맞힌 '예측의 천재' 네이트 실버의 슈퍼 베스트셀러!

문의: 02-332-0931

제 25차 경제경영 연합광고 캠페인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효성 왕좌’ 뺏길라... 실탄 쌓는 조현준

(효성 사장-조석래 회장 장남)

ITX 지분 담보로 대출... 삼남 현상 부사장과 후계경쟁 위한 현금 확보 분석

‘포스트 조석래’를 놓고 동생 조현준 부사장과 경쟁하고 있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또다시 현금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월 효성의 최대주주에 오른 조 사장이 주식담보대출로 마련한 실탄을 가지고 추가적인 지분 매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11일 하나대투증권과 보유 중인 효성 ITX 지분 51만 9211주 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도 삼성증권과 39만4090주 담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 사장은 효성 ITX 최대주주 2분기 말 기준으로 지분율은 37.63%이며 (우효성이 30.10%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측 지분은 67.73%에 달한다.

조석래 회장의 장남과 삼남인 조현준 부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은 작년부터 경쟁적으로 효성의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차남인 조현준 전 부사장이 지난해 3월 회사를 떠나면서 보유 지분 71.8%를 오너 일가가 아닌 기관에게 매도를 했고 이로써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3.24%에서 26.06%



로 줄어든 이후부터다.

이에 조 사장과 조 부사장은 경쟁적으로 지분을 사들이면서 경영권 승계 기반을 닦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사장은 올해 들어서만 17만여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9.85%에서 10.40%로 높여 조 회장 지분을 제치고 효성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며 조현상 부사장 역시 35만여주를 사들이며 지분율 9.06%에서 10.08%로 늘렸다.

조 사장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확보한 현금으로 효성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조 사장이 올해 들어 효성 지분매입에 쏟아 부은 현금은 60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도 추가로 효성 ITX 주식 담보 대출로 실탄을 확보해 지분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을 시가의 50-60% 대출비율을 인정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조 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손에 쥔 현금은 40-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담보 계약까지 합하면 조 사장이 효성 ITX 지분을 담보로 확보한 현금은 70-85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효성그룹은 차남 조현준 전 부사장(법무법인 현 고문번호회사)이 처분한 지분에 대한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지분이며 경영권 승계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조 회장이 탈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조 사장의 지분 매입은 후계구도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공시 돋보기

효자 덕에 목돈 챙긴 AK홀딩스

자회사 AK캠텍 중간배당 통해 36억 수익

AK홀딩스가 자회사 덕에 배당금 수익을 두둑히 얻었다. 재무구조 개선 및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마련에 나선 AK홀딩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K홀딩스의 자회사 AK캠텍은 보통주와 종류주당 각각 58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49억 6171만원이다. 배당금은 내달 14일 내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현금배당으로 AK캠텍의 최대주주인 AK홀딩스(지분율 72.48%)는 35억 9626만10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고리 끊기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AK홀딩스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AK홀딩스는 지난 6월 3일 857억 6000만원 규모의 주주배정권 실행권 일 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행금액은 4만6700원으로 조정돼 마련할 수 있는 자금 규모도 747억 2000만원으로 줄었다.

유상증자도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다. AK홀딩스가 실시한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12일 주주를 대상으로 정약을 마친 결과 94.7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AK홀딩스는 유상증자 자금으로 차입금 824억원 중 일부를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AK캠텍이 보유한 에이케이에스앤디의 주식 119만3804주를 80억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김유진 기자 eugene@

증시 레이터

정책 끌고, 실적 밀고 증시 추가 상승 기대

이번주(8월18일~22일) 역시 국내 증시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작용할 것이라 전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경우 지난 1기 경제팀과 달리 한은과 정부가 향후 경기 부양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장도 “지난 2년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는 정책 기대였다”며 “최경환 경제팀과 더불어 한국은행 역시 경제팀과 긴밀한 공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증시의 경우 당분간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주목하는 주식시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은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 이익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외변수다. 우선 오는 21일(현지시간) 발표되는 유로존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8월 PMI가 지난달(51.8)보다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이어 발표되는 부진한 경제지표로 유럽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심화될 것이라 판단이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어 상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같은 날 중국에서도 HSBC 제조업 PMI가 공개되는데 중국 역시 지난 달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아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중국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개혁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며 “최근 지표 둔화가 예상된 수순이란 점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FOMC 회의록도 주목해 봐야 한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FRB 부의장인 스탠리 피셔가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세가 실망스럽고 금리인상은 마지막 수단인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며 “7월 FOMC 회의록에서도 테이퍼링의 이행과 출구전략에 신중한 스탠스 재차 확인하며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HD 채널 우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SP 종목분석 ② 스카이라이프

3분기 영업이익 11.7%↑ 전망

스카이라이프가 KT와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점과 고해상도 방송(HD) 채널 우위를 바탕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수익성 개선세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KT계열의 국내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다.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비중은 수신료 58.33%, 채널수익 22.64%, 광고 2.74% 등이다.

2011년 6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시초가는 공모가인 1만 7000원 대비 2.9% 상승한 1만7500원에 형성됐다.

2012년 KT의 공격적 영업, 디지털로의 전환 이유 등에 따른 순가입자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주가도 이에 화답했다. 연초 2만3000원이던 주가는 연말 3만345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실적과 장기 성장성 기대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갔지만 2분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가입자 둔화로 주가 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데 홈쇼핑 수수료 감소로 수익성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실적은 비교적 양호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04% 늘어난 6234억원, 영업이익은 51.22% 증가한 995억원을 나타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했다. 저해상도 방송(SD) 가입자의 HD 전환에 따른 마케팅과 감가상각비용의 증가, 방송발 전기금 회계처리 변경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HD로 전환한 SD 가입자가 20만 명으로 추정되며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고,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나눠 반영했던 해당금금을 올해부터 2분기에 일시적으로 모두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변경됐다.

3분기에도 OTS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약정만료 가입자가 증

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와 KT의 합산세유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ARPU 증가, 홈쇼핑사업자와의 협상이 완료되며 플랫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난 1582억원, 영업이익은 11.7% 증가한 318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자와 실적 모두 2분기 저점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며 초고화질 방송(UHD)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KT그룹의 사업구조개편 이후 핵심방송사업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정석 기자 jcha@

KAI, 3년만의 회사채 노크에 ‘우르르’

2000억 발행 5500억 몰려

3년 만에 회사채 시장을 다시 찾은 한국항공우주(KAI)가 기관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3일 실시한 한국항공우주의 3년 만기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5500억원의 기관투자자금이 공모회량금리 내로 참여했다.

회량금리밴드는 KAI의 3년물 개별 민평(민간채권평가)가 집계한 금리평군에 70.18%+0.02%포인트 가산한 수준이 제시됐으며 수요예측에서 발행스프레드는 하단 5bp 수준에서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신용등급이 상향된 데다 3년 만의 회사채 발행이라는 희소성이 수요예측에서 인기몰이를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이 몰린 것은 신용등급이 올랐고 그만큼 내용이 좋다는

것”이라며 “3년 만에 나온 거라 희소 가치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NICE신용평가는 KAI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신용평가 역시 6월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했다.

KAI는 최근 개발비용은 약 320억원, 양산비용은 2600억원 규모의 의무후생 전용회기 사업을 수주했고 올해 11월에 LAH(소형무장헬기) 체계개발비 6000억원, KT-1 기본훈련기의 터키향 후속 수출 1500억원, 보잉사와 에어버스사로부터 민항기 기체부품 1조원 등을 수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채권은 오는 22일 발행되고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KAI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 중 1000억원은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차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해외매출 증가·실적선방·하반기 시작 공로...

엔씨, 우원식 CTO에 스톡옵션 부여

엔씨소프트가 우원식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을 부여했다. 올 2분기 해외 매출 증가를 바탕으로 한 실적 선방과 하반기 선보일 신작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우 부사장에 보통주 5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14만7000원이며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이다. 행사가능기간은 2016년 8월14일부터 2019년 8월13일까지 매년 25%씩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스톡옵션 부여의 배경은 우 부사장이 올해 초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게임 개발 실적 및 향후 2분기 실적에 대한 공을 인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649억 4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35% 증가한 2138억1100만원, 당기순이익은 54.71% 증가한 529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시작 발표에 따른 주가 상승 및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어 우 부사장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부사장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14일 종가 15만5500원과 8500원의 차이가 난다. 현재 가치로 단순 계산하면 4억 250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하반기부터 주요 신작들을 본격 선보일 전망이다. MBA(메탈블랙 얼터너티브)와 ‘리니지’ 시리즈를 잇는 대작 ‘리니지 이터널’도 하반기부터 테스트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SBI액시즈, 日 소프트뱅크에 전자머니 서비스

SBI액시즈가 일본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에 전자머니 캐시비 서비스를 연내 시작한다. SBI액시즈는 일본 전자결제서비스 업체로 지난 2012년 말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18일 SBI액시즈 관계자는 “현재 NTT 도코모와 KDD에서 캐시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근시일 내에 소프트뱅크를 통해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에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본 3대 이동사 가입자 모두가 전자머니 캐시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BI액시즈가 지난해 말 NTT도코모를 통해 처음 론칭한 이 사업은 한국 전자머니 캐시비의 일본용 서비스다. SBI액시즈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신사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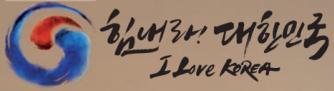
캐시비 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SBI액시즈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머니를 충전한 뒤 한국의 캐시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캐시비는 국내 대중교통을 비롯해 편의점, 롯데리아 등 전국 5만여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카드이다. 회사 측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여행

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수단 증가와 인지도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BI액시즈는 전자상거래결제 시스템 도입이 미진한 동남아시아와 싱가포르 법인 중심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에는 일본의 브로드밴드세curities 리터와 자본·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지속적인 성장에 기대되는 IT 보안 시장에서 브로드밴드세curities가 가진 높은 기술 개발력과 SBI그룹 가맹점을 통한 판매 채널 확대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송영록 기자 syr@



(2014.7월 현재)



특별한 만족을 **다들** 드립니다

참! 좋은 약속카드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매년 통 크게 돌려드립니다

정액 캐시백

- 50만원(연 3,000만원 이상 이용 시) | 30만원(연 2,000만원 이상 이용 시)
- 15만원(연 1,500만원 이상 이용 시) | 10만원(연 1,000만원 이상 이용 시)
- 5만원(연 600만원 이상 이용 시) | 3만원(연 300만원 이상 이용 시)

발급대상 : 개인회원(본인 및 가족회원)

연회비 : 2천원(UnionPay), 4천원(VISA, MASTER)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 즐기Go! 나라경제 살리Go! 안전하게 일석이조 국내여행을 떠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4-1102호(2014. 07. 23) 출금번호 CT024

이 안내문은 2014. 07. 23일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BK고객센터(☎1566-26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처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시 즉시 안내합니다.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BK기업은행 ☎080-800-019) BK기업은행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bkehrms@bk.co.kr)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연체 이자율(최저 연6.5%~최고 연24.0%)은 정상 이자율 및 연체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